

15일 Market Index			
코스피	2601.28	코스닥	899.03
	(+28.39)		(-0.44)
금리 (미국 9월)	3.850	환율 (원/달러)	1325.90
	(+0.014)		(+0.20)



AI 투자 바람에 D램도 날개... 반도체 시장 희망 보인다

4분기 D램값 17.8% 오를듯
메모리업계 실적개선 전망

SK하이닉스 이어 삼성전자
HBM3 공급으로 수익성 ↑
증권업계 목표 주가도 상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도 확실시된다. 기술 개발과 투자 경쟁도 다시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3면〉**

17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최고점 수준인 각각 9만 원대, 15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메모리 업황 회복 전망이 이어지는데 따른 조치다. D램 가격에 대해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7.8%나 오를 것으로, 트렌드포스도 5% 상승을 예측했다. 수요가 다시 공급을 넘어선다는 것. 낸드플래시도 재고 정점을 지나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모바일 D램 가격을 2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하락 후 결국 공급자 우위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메모리 업계 흑자 전환도 머지 않았다는 기대도 나온다. 종전까지는 내년에서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예

사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부터는 수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3분기 실적도 당초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다음주 미국 마이크론 실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메모리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AI) 수요다. 데이터센터 업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AI 반도체 투자에 전력을 쏟는 가운데,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3 공급을 시작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규격인 DDR5 D램 보급 확대에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된 영향이다. DDR4 역시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DDR5로 전환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진다.

스마트폰 시장도 모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인다. 애플 아이폰 15가 예상을 뛰어넘어 흥행에 성공할 조짐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 인기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중국 시장도 심상치 않다. 애플 아이폰 15가 정부 규제 속에서도 높은 예약판매 기록을 썼고, 최근 출시한 현지 폴더블 제품들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 화웨이



추석 대목 맞은 전통시장

추석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둔 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 /뉴시스

사태로 '애국 소비'가 시작된 것도 부품 업계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 기술 경쟁도 다시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통합칩(SoC)과 메모리로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위기 의식도 크다.

삼성전자가 젠 걸음을 걷고 있다. HBM에서 한 발 늦은 대신, GDDR7과 PIM 등 D램 기술과 새로운 규격인 CXL까지 차세대 고성능 제품 생산을 시작하며 '조격차'를 증명할 준비 중이다. AI 도입 준비도 거의 마무리됐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3 물류&모빌리티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초국경 물류위한 현재와 미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물류도 대변혁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기간 폭발했던 국내 물동량은 잠시 소강 상태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지속 성장속에 첨단 기술의 물류 분야 적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이동로봇, 드론, 전기차 등 모빌리티까지 기술 융합에 적극 가세하면서다. 이에 따라 퍼스트마일, 미들마일, 라스트마일의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또 효율화되고 있다. 기업들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간, 얼라이언스(동맹)간 이합집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초국경 물류를 잡기 위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조명해본다.

- 주 제: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일 시: 2023년 9월19일(화) 오후 2시
-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등 록: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기조강연: 인천대 송상화 동북아물류대학원장
- 강 연: 아워박스 박철수 대표, 하이리온산업 김서영 대표, 로지올(생각대로) 최규범 부사장
- 후 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물가 못잡는 美, 금리인상 촉각... “이달은 아닐 것”

美 연준 19~20일 FOMC회의
고물가 지속... 인상 시간문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열기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한쪽을 누르면 또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금리인상 시점이다. 지난 6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0.25%포인트(p)씩 두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7월 금리인상 이후 마지막 한발이 이달, 혹은 11월과 12월 중 언제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9~20일(현지시각) 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FOMC 회의 결과는 한 국시각으로 오는 21일 오전 3시 공개된다.

◆지표만 보면 '금리인상' 가능성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9월까지 2개의 고용보고서

와 2개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 많은 경제활동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지난 7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고용보고서를 보면 비농업 일자리는 7월 15만7000개, 8월 18만7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농업 일자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급격히 감소한 뒤 대면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60만 개까지 증가하던 일자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농업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인상된 임금은 생산품에 반영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즉, 비농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는 물가 감소를 이끌 가능성이 커 더 이상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6.4%에서 7월 3.0%로 떨어지다 또 다시 올랐

다. 근원 소비자물가도 4.3%를 기록해 4%대를 이어갔다. 비농업 일자리가 둔화하는 등 대내적으로 물가하락을 부추기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국가유가 상승 등이 지속돼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대다. 금리인상의 첫번째 목적이 물가안정에 있는 만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장, 9월 금리동결 전망...
“상황 지켜볼 것”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달

은 아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제유가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약화되는 추세다. 소비약화라는 변수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라 설명이다.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는 지난주 “이달 회의에서 또 한번의 (금리 인상) 건너뛰기(skip)가 적절할 것”이라며 “하지만 건너뛰기는 멈춘다는 뜻이 아니며, 향후 몇 달간 데이터와 전망을 더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총리 해임’ 민주 결의에 “막장 정치투쟁... 피해자는 국민”
▲ 정의, 22대 총선대비 정책자문단 구성... 각 분야 총 95명 **〈사진 뉴시스〉**

▲ 보건부,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 6인 인사카드 최초 발굴·공개
▲ 10·11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온라인으로도 가능



▲ 여당 “이재명 단식장 찾아갈 의향 없어... 방탄·내부 결속중” **〈사진 뉴시스〉**
▲ 민주 “윤 정권 폭정 멈추고, 한덕수 해임·국정쇄신 나서야”

尹, 국제 위기·과제 해결의지 천명... 부산엑스포 외교도

尹 대통령, 20일 美 유엔총회 참석
김 여사와 4박6일 일정 오늘 출국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 소화하고
안보 국제 리더십 발휘 의지 알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18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와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의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기여외교를 강조해왔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에서도 첫 번째 목표로 명시돼 있는 국정운영의 핵심이자, 외교·안보 비전이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18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글로벌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하고, 기후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 시민이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

가 필요한 안보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책임·기여외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안보 지원·인도적 물품·재정 지원 등을 총망라하는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1억50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달 인도에서 열린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내년에 3억달러, 중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 2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3억 달러는 무상 개발 협력·유럽부흥개발은행(EBRD)·월드뱅크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20억 달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비롯해 올바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유엔 산하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김 차장은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러한 원칙들을 잘 가다듬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임을 세계시민 앞에 알릴 예정”이라며 “유엔 사무총장과 의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대국의 최고위급을 대면 접촉하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수단을 통해 부산엑스포의 비전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부산엑스포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러한 전방위 양자외교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우리 기업의 시장과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기여외교,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가면서 11월 28일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호명되는 날까지 박람회 유치 총력외교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저성장 극복위해 국가주도 투자지주사 설립해야”

경제·산업계 ‘산업대전환 제언’
첨단산업 글로벌 우위 선점 위해
인재확보·대외전략 등 정비 필요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일류 인재에게 최고등급 대우를 보장하는 ‘우수인재 레드카펫’ 제도를 영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10개월간 공조한 ‘선도 경제 전환을 위해 6대 미

션과 46개 과제’를 정부에 전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경제단체 4곳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대전환 제언’을 18일 정부에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분야로 ▲투자·금융지원 ▲인재확보 ▲생산성 혁신 ▲기업성장 촉진 ▲대외전략 ▲신비즈니스 발굴 등을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40여개 프로젝트를 5개 신비즈니스를 발굴했다.

먼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과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Reverse-BTL은 정부가 팹(제조시설)을 준공하고 소유권은 기업에 양도하고 운영권은 기업에게 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인력’ 분야에서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

(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HR 카라반’을 발족해 전세계 우수인재 거점을 찾아 홍보하는 한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과 파격 정주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를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정혁신 실현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무보, 美·캐나다와 공급망·에너지 협력강화 협약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시장으로서 중요도가 큰 북미와 우리나라의 공급망·에너지 공동대응 협력이 보다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주요 공급망 대응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과 주요 전략산업 시장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무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동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금융지원 제도·공급망 대응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기로 했다.

韓기업 녹색산업 시장 진출 위해 美 에너지부와 공동프로젝트 발굴

캐나다와 SMR·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프로젝트 시장진출 협력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을 확장하며 관련 인프라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미국 내 전기차 등 혁신에너지 관련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무보는 지난해에도 미국 수출입은행과 공급망 대응 협력과 금융 리스크 분담을 골자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의 소통 창구를 한 단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캐나다와의 공급망·에너지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무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캐나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북미·인도태평양 제3국을 아우르는 지역의 핵심광물, SMR(소형모듈원자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 에너지 프로젝트 시장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캐나다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필수 소재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수급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과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공급망에 걸친 프로젝트를 공동지원하며 관련 정보도 교환했다.

무보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2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한 바 있는 솔루스첨단소재의 캐

나다 퀘백주 배터리 전지박 제조공장 건설 착공 현장도 방문했다. 공정이 완공되면 연간 전기차 45만 대 생산 분량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북미 진출 배터리·전기차 기업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전자, 4세대 HBM 공개 임박

엔비디아 계약 등 광폭행보
11월 ‘인베스터즈 포럼’ 예정
차세대 칩 공급 청사진 공개

삼성전자가 오는 11월 홍콩에서 투자자 포럼을 열고 4세대 HBM 칩 개발 및 차세대 칩 공급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이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엔비디아(NVIDIA)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4세대 HBM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홍콩 언론 아이지웨이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1월 매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3 인베스터즈 포럼(2023 Investors forum)’을 연다. 구체적인 일자는 미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삼성전자 메모리칩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사업부 임원과 골드만삭스, JP모건, 피델리티, 블랙록 및 싱가포르투자청(GIC)가 참여한다.

HBM(High Bandwidth Memory)은 고대역폭 메모리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GPU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GPU 내에서 또 핵심 역할을 하는 HBM도 수혜를 입었다. 삼성은 특히 HBM 일괄 공급(턴키·Turn Key) 체제에 갖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삼성의 HBM3 공개와 투자 유치에 관심이 모아지는 데에는 GPU 시장의 성장과 핵심 플레이어인 엔비디아(NVIDIA)에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엔비디아(NVIDIA)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HBM3 공급 계약을 맺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AMD와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GPU 시장은 197억 1166만 달러였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전세계 GPU 시장의 대표격인 엔비디아와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

데, 2028년 334억6393만달러로 연평균 7.85% 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업계에서 추정하는 엔비디아의 GPU 시장 점유율은 약 80% 안팎이며 AMD는 인텔과 나란히 9%대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와 점유율의 추가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GPU는 CPU와 달리 그래픽 병렬 연산이 가능해 인공지능 학습과 고도화에 쓰이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이 HBM이다. 앞서 전세계적 열풍을 부른 챗GPT가 1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NVIDIA)의 GPU를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AI와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개발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는다면 GPU와 HBM 시장 전망은 장밋빛이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년도 삼성전자의 HBM 시장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존 SK하이닉스로부터만 HBM을 공급받던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로 공급망을 다변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점유율

40%를 선점하며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아이폰15의 출시도 삼성전자에 호재가 됐다. 아이폰 15가 탑재 국면이던 스마트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아이폰을 비롯한 여러 스마트폰에 D램(RAM)을 공급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HBM 설계, 생산부터 2.5D 첨단 패키징까지 HBM 턴키 생산체제를 유일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턴키 체제는)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 입장에서 HBM 공급 안정성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동시에 첨단 패키징의 공급처 다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딘 듯 보이던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장밋빛이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지난 13일 기준 9만1364원으로 SK증권이 평가한 목표주가가 10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영업이익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 그래픽 처리장치(GPU) 상용화로 각광받게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디(D)램, 낸드(NAND) 가격이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동시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4분기부터 3조원 규모의 누적된 메모리 반도체 재고평가손실 환입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크게 증가한 1조47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이전 전망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품믹스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아서 적자폭을 크게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중국이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

尹 “北 핵 공격,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결속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의 확장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연준 방향성 관건… 환변동 위험 여전

》1면 ‘물가 못 잡는 美…’서 계속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 위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는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98%에 달했다.

◆ 高환율 韓, 금리인상하나

특히 이번 미 연준의 금리 결정방향은 한국은행의 10월 추가 금리인상 결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 금리(5.25~5.50%)와 2%p 벌어진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 금리정책이 어느정도 오래갈 지에 따라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한미간 금리격차로 외환시장 자본이 유출되거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

만, 시장의 기대감이 외환시장에 반영되는 만큼 연준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원·달러 환율은 1325.9원에 마감했다. 지난 7월 평균 1286.30원 대비 3% 올랐다. 연준 금리인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경제위기로 기대한 만큼 반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준이 당장 동결을 하더라도 금리인상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비취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금리인상 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지난 1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고, 당분간 주요 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높은 환율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경제주체들은 환변동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휘발유·경유 가격 10주 연속 오름세

IEA, 4분기까지 공급부족 전망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연장 검토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0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고유가가 지속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추가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0.77원 상승해 1769.86원을 나타냈으며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0.60원 상승해 1668.6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의 평균가격이 1743.39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높은 1776.5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도 알뜰주유소가 1644.49원의 평균가격을 기록하며 가장 저렴하게 판매했으며, GS칼텍스 주유소의 평균가격이 1676.21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2원 오른 1848원이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0주째 오름세가 지속되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앞에 가격 안내문에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

78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2원 오른 1740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30원 낮았다.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세계 3대 유종인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가격은 모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그중 우리나라의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의 가격은 15일 기준 배럴당 93.56달러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앞으로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3일 발표한 9월 석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 4분기까지 상당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석유 제품의 수요가 더 견조해졌다고 감산이 유지될 경우 올해 공급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OPEC 회원국인 리비아의 대홍수로 동부 지역 4곳의 원유 수출 터미널이 폐쇄돼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

한편 주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에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SK, 인력충원 등 경쟁력 강화 분주

》1면 ‘AI 투자 바람에…’서 계속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개발한 AI를 쓸 예정으로, 일부 공정 개발 과정에 자체적으로 기초적인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인텔과 함께 서버용 메모리 성능 검증에 나서는 가운데, 사

내서 후공정 인력 충원을 하면서까지 HBM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힘을 더하고 있다. 키파운드리 대만법인과 솔리다임 국내 지사를 폐쇄하는 등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하며 미래 투자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김재용 기자 juk@

32만t 플라스틱, 자원으로 재탄생… SK ‘도시유전’ 만든다

복합 플라스틱 재활용 ‘울산ARC’
소각쓰레기 등 화학적 재활용 분해
나프타·열분해유 등 원료로 회수

“우리가 쓰는 모든 플라스틱을 재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려고 한다. 인류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도 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이노베이션 정유·화학 복합단지(울산CLX) 안에 들어서는 세계 최초의 복합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 ‘울산ARC’를 두고 한 말이다.

지난 13일 방문한 울산ARC의 규모는 거대했다. 축구장 22개를 합친 넓은 공간에는 중장비들이 바빠 오가고 있었고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지금은 땅을 평탄하게 고르는 정지(整地) 작업이 한창이지만 2025년 가동 목표로 공사중이고, 완공되면 매년 폐플라스틱 32만톤(t)을 재활용할 수 있는 복합단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2만t은 500ml 생수병 213억 개에 달하는 규모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산업적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30% 이상 반드시 쓰도록 법제화했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재생 원료를 2030년까지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울산 남구에 위치한 SK 울산 콤플렉스(C LX·복합정유화학단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복합단지(ARC) 공사 현장.

유엔환경계획(UNEP)은 “2040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약 1억t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건설팅 기업 맥킨지는 이를 처리하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SK지오센트릭의 울산ARC가 가지는 의미는 뜻깊다. 세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대표하는 세 공정을 모두 갖춘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활용 기술별로 ▲열분해 15만t ▲페트(PET) ▲해중합에 9만 8000t ▲고순도 폴리프로필렌(PP) 추출에 7만6000t의 원료를 투입한다.

해당 시설에 쏟은 투자비용은 1조 8000억원으로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북미 루프인더스트리·미국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 등과도 협력한다.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물리적(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재활용이 있다. SK지오센트릭이 추진하는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분해해 나프타, 열분해유 등 원료를 회수할 수 있다. 폐플라스틱을 세척하고 단순 분쇄한 물리적 재활용과 달리 화학적 재활용 품질 유지에 용의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지훈 SK지오센트릭 PM은 “유색 폐플라스틱 페트병은 플레이크 형태로 전처리하고 섬유는 파운 섬유 형태로 만들어 공정에 투입해 음료용 페트병, 리사이클 의류를 생산할 수 있다”며 “해 중합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어떤 품질 저하도 없이 고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SK그룹에서는 재활용 시장을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보고 ‘카본 투 그린’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SK지오센트릭 PM은 “울산ARC가 가동되면 매년 500ml 생수병 213억개에 달하는 폐플라스틱 32만t을 준공 시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학적 재활용은 재활용 횟수도 제한이 없기에 이른바 ‘도시 유전(油田)’으로 불린다. 매각·소각되는 쓰레기를 미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SK지오센트릭의 목표다.

김 PM은 “계약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32만t 기준 20% 정도는 수주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논의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고 덧붙였다.

원료가 되는 폐플라스틱 확보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SK지오센

트릭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재활용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수급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미 목표량 대비 90%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울산ARC는 SK지오센트릭이 그간 원유에 의존하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다. SK지오센트릭 측은 “굴뚝 산업의 대표 상징과도 같았던 화학 기업이 쓰레기 문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울산ARC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최 회장은 울산ARC를 통해 ‘회색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도 있다고 ‘2023 울산 포럼’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최 회장은 “이제까지 산업화의 끄적함을 제조업에서 봤다면 이제는 예술 상품으로도 느낄 수 있게 공장의 외부를 꾸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울산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며 “산업 클러스터 형태 자체를 수출할 수도 있고, (외관의) 아름다움을 더해 관광 투어 코스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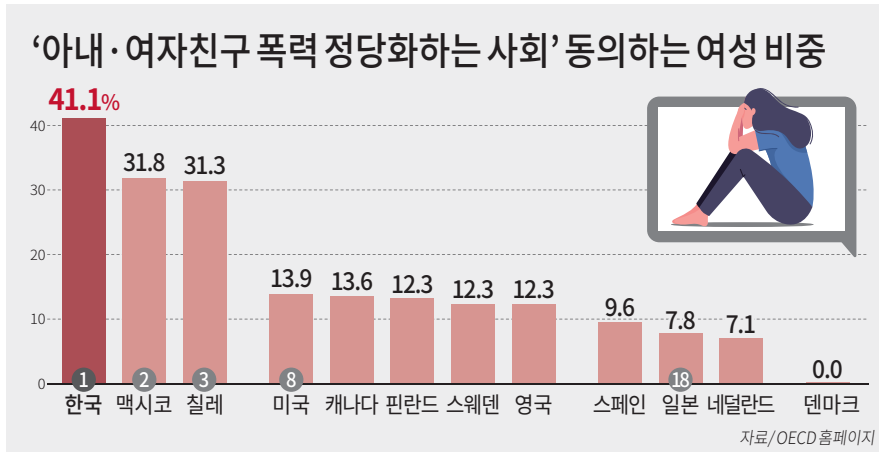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韓 여성 41%, 매맞는 아내·데이트 폭력 ‘정당화 되는 사회’ 동의

OECD, 올 폭력에 대한 사고방식
38개 회원국 중 한국 불명예 1위
美 13.9%, 日 7.8%, 덴마크 0.0%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2명은 남편(남자친구)의 아내(여자친구)에 대한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17일 OECD에 따르면 남성 배우자나 애인이 아내 또는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해도 정당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 한국 여성의 비중이 41.1%에 달했다. OECD는 올해 기준 ‘폭력에 대한



사고방식’ 항목에서 이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특정 상황에서 묵과되는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매맞는 아내’와 ‘데이트 폭력’ 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본인이 직

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남성의 폭행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총 38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7개국 비교에서 한국은 이 같이 응답한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았다. 불명예 1위다. 미국 역시 8위에 올라 상위권에 속했지만 배우자 등의 폭력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여성 비율은 13.9%에 그쳤다. 이어 캐나다(13.6%), 핀란드(13.2), 스웨덴·영국(12.3%) 콜롬비아(12.3%) 헝가리(11.5%) 노르웨이(11.1%) 등이 중상위권을 형성했다.

일본은 7.8%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

를 보였다. 일본여성 10명 중 9명 이상은 자국이 그런 사회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본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 국가는 스페인(9.6%)과 네덜란드(7.1%), 호주(6.8%) 등이다.

이탈리아(6.1%)와 튀르키예(6.0%), 슬로바키아·프랑스(5.5%), 그리스(5.0%) 코스타리카(3.0%) 등은 더 낮게 나타났다. 동의비중 3% 미만으로는 뉴질랜드(2.9%)와 체코(2.6%), 포르투갈·독일 벨기에(2.5%), 라트비아(1.9%), 리투아니아·아일랜드(1.4%) 순이다.

덴마크는 비중이 0.0%로 남녀관계에서 물리적 폭행이 용인된다는 데 동의한 여성이 아무도 없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섭게 빨라지는 ‘고령화’… 전자업계, 시니어 헬스케어 시장 ‘정조준’

내년 韓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
삼성 스마트 싱스 홈케어 서비스
LG 안마의자 팝업스토어 운영

무섭도록 빨라지는 고령화에 전자업계가 시니어 헬스케어 가전과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8.4%가 된다. 2025년에는 2.2% 추가 돼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를 2030년 16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업계는 지난 2010년대부터 의료기술의 발달로 길어진 수명과 저출생 현상으로 실버산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시장 연구에 나섰다. 시니어 헬스케어 기술은 개발 기기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유아동은 물론 장애인, 더 나아가 건강한 성인까지 아우르는 범용성을 갖고 응용력이 좋다는 데 있다. 노년층 신체의 부자유한 움직임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이 곧 건강한 성인 신체에 야인 다른 신체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최근 자사 안마의자 ‘LG 힐링미오브제컬렉션 아르테’를 출시하

고 서울 곳곳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14일까지 여의도 IFC몰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약 4000여 명이 오갔고, 오는 16일부터는 서울 강남구 카페 ‘알베르’와 레스토랑 ‘스케줄청담’에서 운영한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히타치와 공동개발한 안마의자를 처음 출시한 후 2010년 자체기술로 개발한 진동 안마의자를 내놓았다. 당시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헬스케어 사업 상품으로 낙점된 첫 상품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싱스 홈케어’를 업데이트하면서 냉장고 사용

빈도를 분석해 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냉장고 사용 빈도를 분석해 혼자 살거나 멀리 사는 가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밀리 케어 기능이다. 냉장고 문이 미리 설정해 놓은 시간 동안 계속 닫혀 있으면 등록된 가족의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이 전송되고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해 가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고령자가 평소보다 오랫동안 냉장고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아프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착안한 기능이다.

/김서현 기자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이달 7~14일 운영 중인 ‘LG 힐링미오브제컬렉션 아르테’ 팝업스토어. 일 평균 약 500명이 안마의자를 체험하면서 도심의 일상 속 작은 휴식을 누렸다. /LG전자

동서식품

그리웠던 마음
보고 싶었던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한 잔의 커피에 담았습니다

맥심과 함께
행복한 추석을 만드세요

Maxim[®]
커피라는 행복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18일째… 野 “119 불러 중단 설득”

김기현 “이 대표 건강 회복하면 대표회담 열고 민생 논의할 것”

박성준 “與, 단식 두고 조롱·비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정부 처음”

檢, 다음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한계로 치닫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의원의 결의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에게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 의원들, 지지자의 걱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하다. 의료진 소견이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면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치명적 건강 손상이 올 수 있으니, 불가하다’고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답한 뒤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건강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과 구청장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이재명 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의 단식중단 촉구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악화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했으며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구청장들도 당 대표실 앞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한 의총에서 ▲민주당의 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 돌입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대응 및 불법을 저지른 검사 탄핵 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저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

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동안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다”며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 검찰이 다음주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

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은 ‘일촉즉발’ 상태로 번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18일째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라고 판단하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119 구급대를 호출하며 이 대표를 설득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15분에 의료진이 이 대표를 진단했다. 의료진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긴급하게 119를 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식 18일차를 맞이한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긴급 입원을 해야 한다고 당 대표에게 전달했는데,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 몇 분들이 이 대표를 설득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해 “지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지 못하시고 단식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만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검토에 ‘밀실야합’ 반발

의석 확보에 약 6% 득표율 필요
정의당·진보정당 규탄 나서
민주당 “촛불 전 선거제로 퇴행”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러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언급할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소수 정당들을 이를 ‘밀실 야합’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



정기국회 개회일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지역균형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뜻하

는데, 20대 총선까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를 실시했다.

이를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서 득표한 득표율 대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약 6%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제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에서 전국단위 봉쇄조항 3%가 유지되면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은 전국 단위 봉쇄조항 3%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권역에서 약 6% 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도 성립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의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올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

다. 이어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는 원내 1, 2 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만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린 상황이다.

정의당 및 진보정당들은 이를 “거대 정당 주도의 밀실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한 5대 결의안에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도 추가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개혁 약속(위성정당방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대통령결선투표제 등)을 지키겠다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324대 안전 부적합

전국 8301대 특별점검
부품 교체·현장 조치 나서

지난 6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000여대를 전수 점검한 결과, 300여대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각 철도 운영 기관이 전국 8301대의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특

별점검한 결과, 324대(3.9%)에서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0건은 부품 교체 등의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22건은 제동거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구동기 오일 부족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

점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한 합동 정밀점검과 각 철도역 관리기관이 시행한 자체 특별점검으로 나눠 이뤄졌다.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설치·작동 상태(부품마모 여부 등)를 들여다보고, 주·보조 브레이크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정밀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모델 31대를 비롯해 서울 등 6개 시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이용자 수, 노후도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40대 등 총 7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 31대 중 26대(83.9%)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기 커플링(연결구) 부속품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與,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후보 김태우 선출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사무총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과 경선에 참여한 김진선 국민의힘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 예비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후보만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 공관위는 강서구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당 지도부만의 선택으로 전략적으로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검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박정익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오늘 나는
특별한 공부를 했습니다

용돈을 잘 쓰는 방법도
어려운 경제 이야기도
알아가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금융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궁금증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나의 세상을 키워주는 은행



행복채움금융교실

청소년·다문화가정·노인 등 누구나 꼭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은 찾아가는 행복채움금융교실과 NH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식 이론 교육 | 은행직업체험 | 신비한 금고체험 | 금융사기예방교육 | 핀테크 체험 |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지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카드사 대출공시 강화… 장기적 금리효과 기대

업계 경쟁유도로 이자 인하 노력
조달비 증가로 단기 효과 없을듯

구간별 평균치, 개인별로 달라
참고자료로 사용하는게 적절

신용카드사 대출상품의 공시 항목이 확대됐지만 한동안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시 강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공시 수준을 강화한다. 소비자들은 각 사별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의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 적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각 사별 조달 금리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차주들이 대출금의 원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주들이 직접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앞다퉈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설명이다. 카드업계 또한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부터 신용카드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공시 내역이 강화됐다. /뉴시스

다만 업계에서는 단기간 내 금리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채권시장 경색에 따라 조달 비용이 커진 탓이다. 지난 12일 기준 여전채(AA+/3년물) 금리는 연 4.59%다. 올해 1월 이후 최고점이다. 이달만 1.9%포인트(p) 상승했다.

하반기 저신용 차주들이 카드사 대출로 몰린 것 또한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내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비씨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8조1872억원이

다. 올해 1월(36조6348억원) 대비 4.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리볼빙 누적 잔액은 7조4148억원으로 482억원 상승했다. 같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중신용차주 확보에 나서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차주들이 카드사로 눈길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자금조달 조건이나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릴 수는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비교에 의한 인하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카드사로 대출이 집중될 우려도 등장한다. 각 사별로 조달 조건이 달라서다. 신용등급이 낮은

카드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부담한다. 같은 조건이라도 금리를 낮출 여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현재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는 AA+(안정적) 등급의 여전채를 발행한다. 이어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은 AA(안정적) 등급이며 롯데카드는 AA-(안정적) 등급으로 업계에서 가장 낮다. 이달 12일 기준 AA+와 AA-등급의 여전채 금리차는 0.34%포인트(p)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는 만큼 금리 공시가 참고자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주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뿐 아니라 고정 수입, 대출 유무,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반기 카드업계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조달 부담이 큰 롯데카드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치를 공개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적용하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은행 판단 맡긴 ‘50년 주담대’… 가이드라인 없어 난감

‘문제시 은행 책임전가 의도’ 지적
은행聯 통해 공동기준 마련 추진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규제에 나섰다. 다만 상환 능력에 대한 예외사항을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 판단에 맡기면서 앞으로 은행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한 대출한도 축소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

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간 원리금 총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DSR 한도를 40%(은행 기준)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DSR 범위를 정할 때 ‘2개년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금액을 정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50년 만기를 적용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40년 만기로 제한한다.

문제는 상환능력 기준을 당국이 제

시하지 않고 은행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빙 소득 이외에도 미래소득, 기대수명, 직군, 은퇴 시점 등의 변수들을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의 변수를 예측하고 대출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가이드라인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결국 문제가 생겼을 시 은행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DSR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정책에 발

맞춰 작년엔 40년 만기 주담대, 올해 초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담대 잔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원인으로 꼽았고 은행들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은행들은 ‘은행책임론’이 나오지 않게 관련 기준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기준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서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로 금융당국의 비판을 받기 싫다”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기준을 만들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도이치은행, 韓 1.5억 유로 자본금 증자

안정적 韓 금융시장에 투자 확대
이복현 금감원장 ‘환영’ 뜻 표해

도이치은행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이복현 원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치은행 본사를 방문해 람 나약(Ram Nayak)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글로벌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도이치은행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115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결정했다.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 ▲한국 경제·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도이치은행의 대(對) 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글로벌 최고 은행 중 하나인 도이치은행의 증자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증자가 글로벌 금융회사와 해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투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생명, 비대면 온라인 저축보험 확대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MZ세대 겨냥 다이렉트 채널 도입

한화생명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채널 확대에 나선다.

한화생명명은 지난 8월 출시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까지 판매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MZ세대라는 가입대상 특성 상 디지털·비대면 유입이 많을 것이라 예상해 다이렉트 채널까지 판매를 확대했다.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9세,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월보험료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추가 납입으로 매월 최대 7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한 9월 중 한화생명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상품권’을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성윤호 한화생명 팀장은 “이제는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카드 News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디스커버 포인트적립 미션 행사

신한카드가 포인트 추가 적립 행사를 마련했다.

◆ 월간 미션 달성 시 추가 적립

신한카드는 신한플레이의 콘텐츠 페이지 ‘디스커버’에서 포인트를 모으는 서비스인 ‘미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디스커버에 방문해 출석 체크와 콘텐츠를 읽으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금 열쇠를 찾을 때마다 최대 20포인트를 적립한다. 월간 30번 이상 완료하면 최대 2000포인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번달에는 참여일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포인트를 최대 3배까지 추가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KB국민카드

천고마비 계절 맞아 도서할인·포인트 혜택

KB국민카드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을 맞아 행사를 진행한다.

◆ ‘독서의 계절’ 가을 맞이 행사

KB국민카드는 가을을 맞아 도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3 ▲인터파크도서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KB페이를 활용해 책을 구매하면 즉시 할인 혜택 및 청구할인, 포인트 추가 적립 등을 제공한다.

행사는 오는 30일까지다.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 KB페이를 사용하면 각각 3000원, 2000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이어 예스24에는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 1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인터파크도서와 알라딘에서는 결제 금액의 3%를 청구할인한다.

NH농협카드

가맹점 분석 고도화 소상공인 상생 서비스

NH농협카드가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 지원

NH농협카드는 ‘가맹점 매출·상권 분석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통합매출현황 데이터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맹점 주변 상권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함께 제공한다.

일별·월별 입금액, 매출액, 수수료 등을 달력 형태로 보여준다. 특정기간의 매출성과와 성장추세를 그림으로 만들어 가독성을 높였다.

/김정산 기자

대화만으로 車 전반 컨트롤… 안전의 대명사에 ‘친절’ 플러스



볼보 XC40

연식 변경… 티맵 2.0 탑재
길 안내 등 다양한 기능 실행
젖은 노면에도 안정성 탁월

‘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더욱 친절해졌다.

XC40에 탑재해 “아리아볼보 행사장으로 가자”고 말하자 “운전하느라 고생 하셨어요.”라는 멘트와 함께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설정되고 오늘 날씨 등을 설명해준다. 이어 스스로 에어컨 온도를 맞추고 응원하는 야구팀의 선발 투수 등 정보를 들으며 주행을 이어간다. 이는 운전자가 별도로 차량 공조장치나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만지지 않고 음성만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볼보 5~6년 전까지만해도 볼보 차량은 단순히 안전한 차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 친절함까지 더해졌다.

지난 13일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된



볼보자동차 XC40 B4.

볼보 미디어 시승행사에서는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디자인과 제원보다는 첨단 기술을 입힌 차세대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2.0(이하 티맵 2.0)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티맵 2.0은 18일부터 티맵 1.0이 설치된 모든 볼보 차종에서 OTA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이날 시승은 볼보 SUV 라인업 막내 XC40 B4 모델로 강원도 고성부터 인제까지 왕복 약 12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실외 디자인 등에 큰 변화가 없었던

타에 차량 주행 전 큰 기대감은 없었지만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건 뒤 모든 게 바꼈다. 차량과 몇마디 대화만으로 모든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 특히 티맵 2.0 업데이트로 추가된 개인화 루틴 기능은 불친절한 수입차의 선입견을 깨줬다. 개인화 루틴은 AI 비서 서비스 ‘누구(NUGU)’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미리 설정한 명령어 한마디만으로 목적지 길 안내와 음악 재생, 차량 제어 등 운전 중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명령어 하나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볼보자동차 XC40 B4 실내모습.

다. 매일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서울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기반으로 실시간 신호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디오북 ‘월라’와 웹 브라우저 ‘비발디’ 등도 탑재됐다.

1시간 20분 가량 주행하는 동안 ‘안전한 차’라는 이미지와 함께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친절한 차’라는 느낌이 들었다.

볼보의 강점인 안전함도 즐기기에 충분했다. 시승 당일 오전부터 이어진 굵은 빗줄기에 젖은 노면을 주행하기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노면을 안전하게 움켜쥐고 달리는 느낌이 들었다. 볼보의 반

자율주행 기술인 파일럿 어시스트2 기능은 안전한 주행을 도왔다.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해주고 설정한 속도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줬다.

또 XC40은 순수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197마력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조합을 통해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B4 엔진은 최고출력 197마력과 최대토크 30.6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48볼트 배터리가 약 14마력의 출력을 추가 지원해 주행 성능이 민첩하게 느껴졌다. 운전자가 필요한 만큼 빠르게 반응하며 막내지만 터프한 주행성을 뽐냈다. 다만 트렁크 용량이 425L라는 점에서 패밀리 SUV로 선택하기 다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승을 끝내고 XC40이 국내 출시된 지 5년이 흘렀지만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외부 디자인 등 큰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하나씩 바꿔나가는 모습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트랙스 크로스오버, CUV 트렌드 주도 ‘스타일·승차감·안전성’ 소비자 열광

6개월만에 누적판매 1.5만대 돌파
쿠페형·넓은 공간 등 상품성 탁월

한국지엠(GM)이 올해 3월 출시한 웨보레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CUV 세그먼트에서 1위를 달성하며 출시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경쟁 모델들과 달리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라인업이 감소되고 있는 세단 자리를 완벽히 대체할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출시 전 실시한 사전계약에서 1만 3000대를 기록했으며 실제 누적 판매 대수는 지난 8월까지 1만 5246대를 기록했다. 이는 사전계약 이후 소비자 이탈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차량과 달리 소비자들의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급 경쟁 CUV인 르노코리아의 XM3가 8월까지 올해 누적 판매량 6322대에 그쳤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한국지엠의 해외 판매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 7월 2만 2375대가 해



한국지엠 웨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ACTIV.

외로 수출되며 국산 승용차 중 유일하게 2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같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인기는 SUV와 세단의 중간 형태로 SUV 수준의 다목적성과 공간활용성, 세단의 스타일과 승차감을 제공해 젊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V 모델임에도 준중형급바디를 갖춰 넓은 실내공간과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지붕이 날렵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스타일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강조한 것이 젊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기본 모델 외에도 RS와 ACTIV

트림의 디자인을 달리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2700mm의 넓은 휠베이스를 적용해 넓은 실내 거주공간과 뛰어난 주행 안전성까지 챙겼다. 인테리어 역시 운전자 중심의 플로팅 타입 8인치 컬러 클러스터와 11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이 연결된 듀얼스크린 구성으로 최신 트렌드를 따르며 세련미를 더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나아가 최근 급감 중인 세단 라인업까지 대체할 전망이다. 다만 출시 초기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양성운 기자

제네시스, 글로벌 판매 100만대 돌파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 올해 8

월까지 국내 69만 177대, 해외 31만 8627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100만 8804대를 판매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11월 국내 최초의 럭셔리 브랜드로 탄생한

지 7년 10개월, 누적 판매 50만 대를 넘어선 지 2년 3개월 만에 일군 성과다.

제네시스 차종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2016년 출시된 G80로, G80 전동화 모델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총 39만 738대가 팔렸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美 워즈오트 ‘10대 엔진’ 수상

아이오닉6 전동화 기술력 입증
“배터리-전기트레인 최고 수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완성차의 전기차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서 전동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 탑재된 동력 시스템이 미국의 저명한 자동차 매체로부터 2년 연속 최고 10대 엔진에 선정된 것이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6의 동력 시스템이 미국 자동차 매체 ‘워즈오트’가 선정하는 ‘2023 워즈오트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을 수상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아이오닉5에 이은 2년 연속으로 10대 엔진에 선정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고 자평했다.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 평가는 워



현대차 아이오닉 6

즈오트가 1995년부터 매년 선정한 것으로, 세계적인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며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밥 그릿징어 워즈오트 편집장은 “아이오닉 6은 뛰어난 효율과 함께 어떤 속도도로도 극한의 가속이 가능하다”며 “배터리-전기 파워트레인에서 명백한 최고 수준이며, 2년 연속으로 선정될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LG, 실무형 AI 전문가 육성 팔 걷어

‘에이머스 해커톤’ 통해 실무 역량 ▲

LG가 올해에도 청년 AI 전문가들을 대거 양성해냈다.

LG는 1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에이머스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LG 에이머스는 AI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3기까지 6000명에 달하는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청년 진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도 수료생 중 10여명이 LG 계열

사에 입사했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커톤은 LG에이머스 마지막 일정이다. 주어진 AI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해결하며 실력을 뽐낸다. 참가자에 참가에 앞서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접근 방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AI 기술 ▲해커톤 문제를 풀기 위한 도메인 지식 등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의 핵심 이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에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 제품 판매량 예측을 위한 AI 모델 개발’을 주제로 747개팀 1424명 중 예선을 통과한 43개팀 108명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다.

/김재용 기자 juk@

글로벌 OTT 위협하는 韓 OTT, 정부지원 업고 경쟁력 강화

쿠팡플레이, 역대 최대치 기록
스포츠 분야 콘텐츠 범위 넓혀
왓차, 성인 서비스로 돌파구 마련

OTT 업계(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내 OTT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플레이의 사용자 수가 600만명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OTT들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다만, 왓차가 성인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OTT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쿠팡플레이 사용자 '역대 최대치'... 정부는 국산 OTT 전폭 지원

17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8월 쿠팡플레이 앱 사용자 수는 634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사에서 단일 OTT 사용자 수가 6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플레이는 지난해 8월 402만 명에서 올해 8월 634만 명으로 232만 명 증가했다. 이어 디즈니플러스가 103만 명, 티빙이 96만 명, 넷플릭스가 35만 명, 웨이브가 4만 명 늘었다.



지난 1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쿠팡플레이의 성장 배경은 스포츠 분야에 적극 투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시즌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앙까지 독점 생중계를 진행해 해외 축구 콘텐츠의 범위를 넓히고 NFL(미국 내셔널풋볼 리그) 등 스포츠 분야에 적극 투자했다.

여기에 정부도 글로벌 OTT기업들에 맞설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국내 OTT들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16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전략으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 속에서 토종 OTT 등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OTT 기획, 제작, 마케팅, 유통 등에 이르는 단계별로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OTT들이 가장 프로덕션 스

튜디오에서 만달로리안을 제작한 것과 같이 국내 기업도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품질은 향상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미디어 분야 기술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현재 넷플릭스의 정보통신(ICT) 분야 보유 인력은 3554명이지만 국내 OTT 기업인 티빙이 보유한 ICT 인력은 7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또 국내 콘텐츠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1500명 규모의 미디어 분야 AI·디지털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쿠팡플레이 사용자, 넷플릭스 '절반'”

다만, 현재까지 글로벌 OTT기업인 넷플릭스가 독주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8월 사용자 수(MAU)는 1223만명이었다. 2위인 쿠팡플레이 사용자 수는 634만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왓차도 성인 서비스를 도입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전망이다. 왓차는 성인물 서비스 도입을 위해 일본 현지 업체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왓차는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관

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독을 해지했다'는 인증까지 하면서 보이콧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국내 OTT들의 저렴한 구독료와 다양한 콘텐츠 도입이 경쟁력이 라고 분석한다.

최근 글로벌 OTT들은 구독료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도 11월부터 새 구독 모델을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프리미엄 요금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넷플릭스도 요금은 올리지 않았지만 베이식 멤버십의 신규 가입을 막았다. 반면, 국내 OTT는 회사가 주도로 구독료를 올린 적은 없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쿠팡플레이 이용자 수는 지난 5월부터 가파른 증가세”라며 “2위 자리를 놓고 티빙과 쿠팡플레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드라마, 영화 외 다른 콘텐츠를 찾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이 가입자 증가를 이끈 것”이라고 분석했다.

쿠팡플레이 관계자도 “최근 콘텐츠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포츠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가속화'

정기선 HD현대 사장

친환경 컨테이너선 '로라' 명명식 참석
메탄올 연료 사용, 첫 컨테이너 운반선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명명식 현장에 참석하는 등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는 정기선 사장이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1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로라 머스크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이 선박은 세계적 해운그룹 'AP몰러-머스크(이하 머스크)'가 HD현대에 발주한 19척의 메탄올 추진선 중 첫 번째로,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첫 번째 컨테이너 운반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메탄올은 LNG에 이어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선박 연료다. 앞서 머스크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첫 단계로 메탄올 추진선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로라 머스크호는 지난 7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출발해 약 2개월, 총 2만



정기선 HD현대 사장(오른쪽 첫번째),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머스크 의장(오른쪽 두번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3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로라 머스크호' 명명식이 끝난 뒤 선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00km의 항해 끝에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머스크가 '해운의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명명식을 본사가 있는 곳에서 개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선 사장도 명명식 참석을 위해 코펜하겐으로 이동했다. 명명식에는 정기선 사장 외 선주사인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머스크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 로라 머스크호의 명명을 축하했다.

선박의 이름은 창업주의 아버지 피터 몰러가 구입했던 첫 번째 증기선 '로라

호'의 이름을 따 지었다. 선수와 선체에 '제로(탄소중립)로 가는 길(All the Way to Zero)'이라는 슬로건을 새겼다. 머스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선박이 코펜하겐에 입항하는 모습과 명명식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세계 첫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의 성공적인 출발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정기선 사장은 최근 글로벌 선사와의 접점을 넓히고 국제 전시회 등에도 연이어 참석하는 등 조선·해운 시장의 친환경 신기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U+, 전국 적십자사에 'EV충전기' 구축

볼트업 나눔 캠페인 실시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Volt-up)'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적십자사 지사와 혈액원, 병원 등 12곳에 볼트업 충전기 30기를 설치한다.

볼트업은 ▲LG전자·LS일렉트릭 등 기술력이 입증된 충전기 제조사들의 고품질 전기차 충전기 ▲충전 예약·원충 알림 발송 등이 가능한 앱 플랫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시스템 및 상담센터로 구성된 서비스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적십자사 소속 기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협조한다. 충전기가 설치된 전국 적십자사 지사와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양사는 적십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트업 충전기 홍보 활동에 나서며, 적십자사 기후변화 대응 사업 활동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양사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오른쪽)와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협약식을 체결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간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많은 성과를 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인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의 볼트업 충전기를 보급하고, 앞으로 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LG CNS, 로봇 통합운영 플랫폼 사업 속도

XYZ로보틱스와 맞손

DX(디지털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로봇 통합운영 플랫폼 사업을 강화한다. LG CNS는 최근 마곡 LG CNS 본사에서 인공지능(AI)기반 로봇 솔루션 기업 'XYZ로보틱스'와 국내 물류센터

의 로봇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XYZ로보틱스는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3D비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로봇의 손에 해당하는 그리퍼(Gripper)를 설계, 제작하는 역량도 뛰어나다. 이러한 로봇 솔루션

을 기반으로 ▲물류센터 입고를 위해 다양한상품을 집어서 화물운반대(팔레트)에 쌓는 '팔레타이징(Palletizing)' 로봇 ▲화물운반대에 적재된 상품을 컨베이어 벨트 등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디팔레타이징(Depalletizing)' 로봇 ▲포장과 분류 등을 위해 개별 상품을 집는 '피스 피킹(Piece Picking)' 로봇을 물류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김서현 기자

KT, 추석 선물 장보기 등 혜택·상품 추가

KT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자사 멤버십을 통한 할인 혜택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매달 새로운 제휴 혜택을 선보이는 '달·달·혜택'과 멤버십 커머스 '마들랜'에 추석 선물 장보기와 영화 예매권 할인 등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상품들을 추가했다.

KT 멤버십 앱에서 이용 가능한 커머스 '마들랜'에서는 ▲정관장 ▲한우선물세트 ▲에디션덴마크 TEA 세트 등의 추석 선물들을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MONTES ALPHA

A TOUCH OF GRACE

나의 첫 와인 몬테스 알파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공모주 대어 ‘슈퍼워크’… 두산로보틱스 등 수조원 몰리나

두산로보, 따파블 흥행관심 주목
밀리의 서재 등 5개 기업 청약
인기 플랫폼·반도체 관련 포함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 밀리의 서재, 아이엠티 등 5개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공개(IPO) 슈퍼워크’가 시작된다.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조원을 웃도는 ‘공모주 대어’인데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플랫폼과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어 증거금으로만 수조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셋째주에 밀리의 서재, 아이엠티를 시작으로 한쌍과 레뷰코퍼레이션, 두산로보틱스가 연달아 일반 청약에 나선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증시에 로봇 열풍을 몰고 온 두산로보틱스다.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협동로봇 시장의 1위 기업이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물리적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을 말한다. 아직 영업적자를 내고 있지만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500억원 이상’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피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두산로보틱스는

공모 자금을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제품군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이며, 공모 예정가는 2만1000원에서 2만6000원이다. 상장 뒤 예상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1조6853억원 수준이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은 흥행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장 첫 날 얼마나 오를지도 관심사다. IPO 제도가 바뀌면서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까지 확대됐지만 아직 따파블(공모가 대비 4배)에 성공한 곳은 없었다. 만약 공모가가 최상단인 2만6000원으로 확정되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다면 최고 10만4000원도 가능하다.

이미 공모가 상단을 웃도는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도 있다.

메리츠증권 배기연 연구원은 “연간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시기는2025년으로 예상하고, 2026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은 427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며 적정주가로 2만9000원을 제시했다. 시가총액 1조9000억원 수준이다.

밀리의 서재와 레뷰코퍼레이션은 플랫폼 기업이다.

밀리의 서재는 구독형 독서플랫폼

으로는 국내 1위 업체다. 작년 매출액 458억원, 영업이익 42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모가는 공모 예정가 상단인 2만3000원으로 확정했으며, 18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66억원 규모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와 국내외 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로 1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회원을 보유 중이다. 희망 공모가는 1만15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청약에 나선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아이엠티는 수요예측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당초 희망 공모가 상단이 1만2000원이었지만 수요예측 신청가격이 상단 초과가 대부분이라 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한쌍은 융합보안 솔루션 전문업체로 공모 희망가는 8900원에서 1만1000원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IPO에 나선 기업들 가운데서는 2차 전지 관련주인 필에너지가 청약 경쟁률 1318대 1로 무려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몰렸고,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인 기가비스도 증거금이 10조원 안팎에 달했다. 올 상반기 공모주의 평균 일반 청약 경쟁률은 586대 1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3분기 호실적에 주가 상승 기대

metro 관심종목

에너지사업 투자로 높은 성장 전망

올들어 주가가 200% 이상 급등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 75% 증가한 9조4553억원, 3453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된 데다가 에너지사업 투자 본격화로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8% 오른 7만9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포스코그룹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사업을 맡은 포스코DX는 포스코퓨처엠과 제너럴모터스(GM)의 캐나다 퀘벡 합작 양극재 생산법인 ‘얼티엄캠’ 1차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약 500억원 규모의 계약



포스코인터내셔널 송도 본사 CI

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포스코그룹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이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에 적용된 것으로 이 같은 소식에 영향을 받아 포스코인터내셔널도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포스코그룹주가운데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주목하고 있다. 하반기 이후 급등세를 보인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대체로 7월 26일을 정점으로 40% 내외의 조정을 보였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 내외의 조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관희 기자 wkh@

국내 증시 상승 전환에 테마주 ‘주춤’

코스피 14~15일 1% 상승 마감
外人 선물시장 2조원 순매수
코스피 지수 2600선 탈환

약세를 이어오던 국내 증시가 상승 전환되자 테마주들은 주춤하고 있다. 투심이 대부분의 업종에 골고루 분포되면서 테마주로 몰렸던 종목 풀림이 개선된 모습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14일과 15일, 이틀 연속으로 1%대 상승 마감했다. 특히 15일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2조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8.39포인트(1.10%) 오른 2601.28에 장을 마쳤다.

최근 국내 증시는 혼조를 보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 지수는 11일 전장보다 9.20포인트(0.36%) 소폭 상승했지만,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4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0.2원 오른 1325.9원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28.39포인트(1.10%) 상승한 2601.28, 코스닥 지수는 0.44포인트(0.05%) 하락한 899.03에 마감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과 15일에는 1%대의 상승률을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스권 흐름이 내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시 약세 속에서 테마주 입질은 지속됐다.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대표적인 로봇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2.2% 올랐지만, 증시 상승세가 유지됐던 15일에는 8.4% 급락했다. 제약·바이오주인 셀트리온제약도 동일 기간 10.5% 정도 상승하고, 15일에는 0.43%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와 로보틱스,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하락하며 900선을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증시 개선과 함께 업종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부진한 시기에 빛을 봤던 테마주들이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의약품(-0.24%)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이 올랐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오랜만에 투자심리가 강한 모습 보이며 거의 모든 업종이 오르다 보니, 최근의 지수 정체 기간 동안 인기를 끌었던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식어버리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증시가 강해지면서 테마주 관심은 시들해졌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 아파트값 17주째 상승…오름폭 확대

신축 선호 단지 위주, 매수 문의 꾸준

최근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2주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 전환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1%) 대비 0.13%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17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 2주간 상승폭 둔화 현상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은 다시 커졌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10%→0.19%)가 행당·응봉동 중소형 평형, 중구(0.11%→0.18%)는 신당·황학동, 용산구(0.17%→0.18%)는 이촌·산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김대환 기자

9월 셋째 주, 전국서 2129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서울 관악구 등 견본주택 4곳 오픈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2129가구(일반분양 110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유보라마크뷰’, 부산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힐

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센트럴아이파크’, 경기 오산시 별음동 ‘호반써밋라프리미어’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일원에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보문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현대건설, 동유럽 SMR 진출 본격화

SMR·원전사업 확대 계획

현대건설이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 포럼에 민관 합동 한국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동유럽 주요국과 가진 회담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대한 진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포럼에는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원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등 주요 의제들이 논의된 가운데 K

원전사업 경쟁력에 기반한 SMR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당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현대건설은 동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써 연내 바르샤바에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대환 기자 kdh@

“제주 특산물로 명품초콜릿 만들어… 코로나 계기 해외수출”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정 기 범 제키스 대표

달콤한 향기가 난다. 제주공항에서 중문으로 가는 평화로를 차로 20여분 정도 달리다보면 만나는 제키스(JEKISS) 본사에 들어서자마자 코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 제키스에는 ‘제주(Jeju)와의 달콤한 입맞춤(kiss)’이란 의미가 담겨있다. 초콜릿 공장 사명 답다. 제주에서 감귤초콜릿을 제조하는 기업 중 10년 넘게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곳 제키스다. 롯데월드(옛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등 초콜릿을 만드는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제키스는 육지에 있는 코롬방제과, 로얄제과와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는 회사다.

“제주에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회사는 삼다수, 한라산 소주 그리고 우리 회사 정도일 것이다. 나도 고향이 제주다. 청정 제주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 세계인이 찾는 명품 초콜릿을 만들고 싶어 고향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정기범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2023 제주 리더스포럼’ 기간인 지난 13일 애월에 있는 회사를 찾은 기자들에게 자신과 회사를 소개했다.

정 대표는 대학 졸업후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처음 취업, 설비기계 영업을 했다. 5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 초콜릿 원료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를 창업했다. 서른 초반 시절 사업가로서 초콜릿과 첫 입맞춤을 한 것이다.

초콜릿 원료를 다루다보니 완제품에도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아예 초콜릿 공장을 차렸다. 2004년 서울에서의 일이다.

팜유 등 식물성유지를 넣은 컴파운드 초콜릿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버터를 함유한 ‘진짜 초콜

2004년 서울서 초콜릿공장 열고 카카오버터 함유 ‘진짜 초콜릿’ 제작

제주 관광객 위한 초콜릿 만들어 제주웰빙·일구오공 거쳐 회사 탄생

매출 120억서 중사드, 코로나에 2019년 60억대로 매출 ‘반토막’

작년부터 매출 90억대로 올라서 제주·해외·육지서 고르게 판매중



제키스 생산라인에서 돌하르방 초콜릿이 나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제키스 정기범 대표가 제주 애월에 있는 본사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릿’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에서 벌인 일이다. 카카오함유량이 50%를 넘는 ‘하이카카오’도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 판매도 제법 했다. 하지만 유사 제품들이 쏟아져나오면서 버틸 재간이 없었다.

“당시 제주에서 생산하는 초콜릿은 제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품질 좋은 제주 초콜릿을 선물하고 싶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초콜릿사업을 시작한 정 대표는 2006년 당시 ‘제주웰빙’과 한라산 높이와 같은 ‘일구오공’이란 사명을 거쳐 지금의 제키스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대표적인 초콜릿 회사로서의 명성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다.

제주의 자연이 선사하는 한라봉, 감

귤, 백년초, 녹차, 복분자 등을 담은 초콜릿을 통해서다. 카카오 함유량이 92%에 달하는 ‘프리미엄 다크 초콜릿’도 제키스의 대표 제품 중 하나다.

초콜릿 뿐만 아니라 마카롱, 크런치 등 제과류까지 제품군을 확장했다. 물론 이들 제품 모두 청정 제주에서 나오는 원료들을 담았다.

정 대표는 “지난 3년의 코로나19가 많은 교훈을 줬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초콜릿은 방문하는 인원수에 따라 매출이 정비례한다. 코로나19 기간 제주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초콜릿 회사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때 120억원까지 찍었던 제키스의

매출도 ‘사드(THAAD)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며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터지며 2019년엔 매출이 최고점의 절반 수준인 6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지난해부터는 서서히 반등하며 90억원대까지 올라섰다.

“코로나를 겪고나니 온라인 판매와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눈을 뜨게 됐다. 제주를 벗어나 육지도 눈여겨보게 됐다.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두바이 등으로까지 해외 판매망을 넓혀나가고 있다. 10월부터는 일본시장에도 다시 진출 기회가 생길 것 같다. 현재 매출 기준으로 비중은 제주가 40%로 가장 높고 30%는 수출, 나머지 30%는 육지에 판매하고 있다.”

해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정 대표가 육지를 거쳐 고향 제주로 돌아와 만든 초콜릿이 다시 육지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갈때마다 한국인의 손에 하나씩 들려오던 ‘OO초콜릿’이, 이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나 해외 여행을 가는 우리의 손에 ‘제키스’ 브랜드 초콜릿으로 바뀔 날도 머지않은 셈이다.

“제주에서 만들다보니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게 가장 큰 애로다. 물류비는 전체 매출의 1%나 차지한다. 또 민간기업이 원료 가공을 위한 설비까지 갖추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1차 가공할 수 있는 설비가 절실하다. 이런 것은 자치도에서 투자나 지원을 해줘야 한다.”

/애월(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韓 물류社 첫 우크라 재건사업

강병구 글로벌대표, 현지서 논의 정부·공기업 ‘원팀코리아’ 구성 500만t 수용 내륙항만 개발 MOU

CJ대한통운이 본격적으로 맞닿을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한다. 한국 물류기업으로는 유일하다.

17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강병구 글로벌부문 대표가 지난 13~14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 일원으로 키이우에서 열린 ‘한국-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재건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원팀코리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해양수산부 및 18곳의 공공민간기업이 참여해 구성했다.

CJ대한통운은 물류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재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건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간 진행한 재건협력 논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강 대표에게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철도와 항만운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1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한국-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CJ대한통운 강병구 글로벌부문 대표(왼쪽)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재건협력 논의의 결과로 CJ대한통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회사 JJ그룹과 우크라이나 루츠크(Luts'k) 지역에 500만톤 이상의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내륙항만(dry port)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JJ그룹은 우크라이나 소크라트(Sokrat) 투자그룹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민간 주최회사다. 루츠크는 우크라이나 북서부 스티르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로, 철도·육상운송의 요지로 꼽힌다.

CJ대한통운과 JJ그룹은 항만과 철도 운송을 연결할 수 있는 대규모 내륙항만을 통해 곡물·식용유 등 식량자원 운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 복원, 카호우카 댐 복구, 상하수도 정비 등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 재건을 중심으로 한 ‘6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CJ대한통운 역시 관련 장비와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는 프로젝트 물류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또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우체국과 함께 K-뷰티·패션 등 한국 상품 진출에 대비한 물류사업 협력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강병구 글로벌부문 대표는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상황 개선에 필수적인 물류 인프라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두바이와 튀르키예에 기반을 둔 해외 계열사 CJ ICM과 올해 초 진출한 폴란드 사무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J ICM은 2017년 중동 중앙물류 1위 기업인 이브라콤 지분 51%를 인수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5년간 스타트업 60여개 육성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성과 누적 투자액 114억, 78건 협업 진행

교원그룹이 지난 5년간 60여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육성했다. 투자액(공동 포함)도 100억원이 훌쩍 넘었다.

17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범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62개의 스타트업을 선발·육성했다. 총 78건의 협업도 이어가고 있다. 누적 투자액은 공동투자를 포함해 114억원 규모에 이른다.

올해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교원 딥체인지 스타트

업 프라이즈 데모데이’를 열고 스타트업 지원 행보를 계속했다.

특히 이번엔 대상출딩스, 하나은행, 휴먼쇼핑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는 ▲에듀테크 ▲AI·빅데이터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핀테크 ▲푸드테크 ▲라이프스타일 등 6개 분야에 걸쳐 스타트업을 모집한 결과 총 256여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교원그룹과 협력 파트너사는 오픈이노베이션 상생을 이어나갈 최종 8개 기업을 선발했다.

/김승호 기자

中企CEO 400명 한자리 ‘리더스포럼’ 성료

재도약 위한 역할·다짐 등 설계

중소기업계 최대 연례 포럼인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지역·업종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롯데호텔 등에서 열린 리더스포럼은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

국’을 주제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다짐을 설계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포럼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거짓 채용공고·부당채용 청탁 등 온라인·건설현장 불공정사례 점검

고용부, 내달부터 점검 예정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와
채용서류 절차 안내 등 집중

고용노동부가 17일 거짓 채용공고 및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대한 ‘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오는 10월4일부터~11월30일까지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대상은 워크넷 구인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사업장 200개소이다.

특히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사례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청년들의 이의제기가 많다”며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2021년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국조실 주관으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 건물.

/뉴시스

로,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다. 채용강요와 기계사용강요, 업무방해 등 건설현장 내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이 밖에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부는 지난4월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거짓채용광고 금지’는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의 채용광고를 금지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요구 금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을 금지한다. ①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채용강요 등 금지’는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과 수수를 금지한다.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국립생물자원관, ‘독도점등에모기’ 신종 확인

70년간 독도경비대원 괴롭혀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7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 온 흡혈성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이 곤충을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라고 이름 지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배연재 고려대학교 연구진은 지난해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독도점등에모기’를 파리목(Order Diptera)과 등에모기과(Family Ceratopogonidae), 점등에모

기속(Genus Culicoides)에 속하는 신종 곤충으로 확인했다.

이 종은 깨알만 한 크기(몸길이 2~3mm)로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동안 갈파구로 오인돼 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갈파구와는 달리 식물의 즙이나 꿀을 먹으며 서식한다. 산란기의 암컷은 척추동물의 피부와 모세혈관을 이빨로 찢어 흡혈한다.

연구진은 독도의 지명을 딴 독도점등에모기의 형태 및 생태정보를 최근 곤충학 국제학술지에 투고했다. 올해 말 국가생물종목목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안전확보 맞손

화학물질안전원

새만금개발청-군산시와 협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18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으로, 행사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 오식도동 일대에 8.1㎢(서울 여의도 면적의 2.8배) 규모로 조성된다.

안전원은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

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협약은 공장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화학물질의 반응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시설 안전성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3D프린팅 국제표준화 주도 나서

국표원, 3D프린팅 기술특화 총회서
압입시험 적용한 내구성 평가 제안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3건 논의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평가와 3D프린팅 재료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22일까지 5일간 인천 항공우주 산학융합원에서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위원회(ISO/TC 261) 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3D프린팅 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 표준전

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제안자 한국재료연구원 권준범)을 신규 제안한다.

또 지난 2021년 3D프린팅의 재료 다양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액조광경화용 세라믹 슬러리 재료 특성’, ‘보급형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비산업용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 고려사항’ 등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3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효과 등으로 급성장 중인 금

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소재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D프린팅 분야 전문 시장조사보고서인 월러스 리포트(Wohlers Report)에 따르면, 금속 3D프린팅 장비 시장은 2018년 9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13억7000만달러로 급성장 추세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3D프린팅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의 표준화 세미나도 열려 최신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뉴시스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할납부 가능

산업부, 내달부터 시행

가스요금 인상으로 올 겨울 난방비 부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달부터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전용앱 등에서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음식점과 미용실 등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상가나 빌딩 등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분

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발급이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 한번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 협조를 사전 요청했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이번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주)테스트테크,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16건 의혹 확인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적발
여성·20대 직원 대부분 경험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및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일삼는 등 노동관계법(총 16건) 위배 의혹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업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총 3800만 원을 체불했다. 또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부

과(9건·3100만 원) 등 행정·사법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에 더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사 내 응답자의 77%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78.7%)을 비롯해 20대(84.2%) 직원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경북도, 지역소멸극복 위한 ‘경북형 6대 프로젝트’ 박차

‘지방시대 선포식’ 발맞춰 발표
‘경북도지방시대’ 구성 근거 마련
K-U시티·K-아이비 등으로 구성

경북도가 ‘경북형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발맞춰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발표다. 앞서 경북도와 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조례로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고 다른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와는 달리 도 뿐 아니라 시군도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특히 지난 1월 1일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청년·인구·외국인·대학정책 등을 종합하는 지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도는 이 프로젝트로 14일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의 날 행사에서 ‘2023년도 청년정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경북형 6대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방시대로 대전환(K-U시티) ▲아이디어 산업 주도 대학으로 대전환(K-아이비)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K-신라방)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K-드림) ▲인구개념 대전환(K-라

이프) ▲청년 중심 사회로 대전환(K-청년 하이웨이) 등으로 돼 있다.

‘지방시대로 대전환 K-U시티’ 프로젝트는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전문대·고교의 일체형 인력양성과 임지·산업·교육·의료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배움터-일터-삶터가 어우러지는 캠퍼스형 창의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그에 상응하는 능력도 발휘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현장 중심의 플랫폼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공동 기획해 지방에서 우선 투자해 실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관리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순천시는 추석 성수품과 식재료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4개반 29명의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 명절 성수물품 수급 및 물가합동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중점관리 품목인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 요원 4명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직접 방문해 가격 변동 추이, 인상업소 지도 등 집중 관리한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기장군

야구체험관·실내연습장 착공

기장군은 기장야구테마파크 내 조성하고 있는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 공사가 9월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은 연면적 6859.78㎡,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200억원이 투입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시설로 투구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물리치료실, 체력측정실 등 훈련시설과 감독실, 코치실, 회의실, 전략분석실, 키즈야구단실 등 코치진과 선수용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시민 재산·생명 보호 위해 재해예방사업 사업비 824억 확보

행안부 내년도 신규사업 선정
평균 사업비비 4배 이상 늘어

울산시가 ‘2024년 재해예방사업’ 등과 관련해 총 3건의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총 824억 원을 확보했다.

선정 사업을 보면,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사업비 420억 원, 국비 210억 원) ▲무동 재해위험개선사업 (총 사업비 210억 원, 국비 105억 원) ▲점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총 사업비 194억 원, 국비 97억 원) 등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울산시 재해예방사업 평균 사업비(206억 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앞서 울산시는 서생지구와 무동지구를 올해 3월 ‘2024년 재해예방 신규사업’으로, 점골지구를 ‘2024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각각

행정안전부로 신청했었다.

이 가운데 서생지구는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으로 지난 10년간 6번이나 침수된 지역이고, 무동지구는 태화강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불량으로 침수가 빈번히 발생해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생활 안전위험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사업 시행은 울주군이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2028년(서생지구), 2027년(무동지구) 2027년(점골지구)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한 결과, 예년에 비해 평균 4배나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근본적이고 항구적 방재대책과 종합적인 정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가 강원도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시

부산시-강원도, 홍보유치 상생 협약

세계박람회·세계산림엑스포

부산시는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강원도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와 강원도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 공감하고 앞으로의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오는 9월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람 홍보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

치를 위한 홍보 협조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람 홍보 협조 ▲양 지자체 간 협력 증진방안 논의 등에 상호 협력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의 대내외적인 홍보역량을 집중하여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제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를 2030년 부산으로 유치하면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경제체질을 새롭게 바꾸는 성장동력이 될 것”고 말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구미시,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2개교 선정

구미초·도송중에 522억 투입

구미시는 지난 9월 14일 교육부가 주관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지역 2개교(구미초, 도송중)가 최종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 유휴공간에 교육·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으로 시는 총 16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구미초·도송중 2개교에 총 522억 원(국비 161, 시비·

기타 361)을 투입한다. 실무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구미초와 도송중 부지 내 교육·돌봄시설, 체육관, 다목적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늘어나는 교육·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광주 서구시설관리공, 자체평가서 낙제점

행안부 경영평 이어… 경영부진 문제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 이어 서구 자체 성과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으면서 경영 부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 서구는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서구는 공단이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의 시설공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서구는 6가지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하점을

줬다. 지표는 책임경영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고객 만족증진, 공단운영 활성화, 경영수지 개선, 정책 준수다.

시설공단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미흡, 노사 갈등 문제, 낮은 고객만족도 등 전체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내년 연봉이 5~10% 삭감된다. 앞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맞았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군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서울 광장에서 ‘영양고추는 언제나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18일부터 3일간 15번째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무대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사절단인 영양고추아가씨들이 현장을 누비며 판매활동에 앞장선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K-푸드 알리고, 지역과 상생”… 1.1만명 식품으로 화합

NS 푸드페스타 2023 in 익산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상생협력의 뜻을 이어가는 축제로 'NS푸드페스타'를 만들어갈 것이다.”(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

“이번 푸드페스타를 통해 전북 익산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이를 통해 K-푸드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NS푸드페스타를 찾은 관람객)

NS홈쇼핑이 전북 익산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NS 푸드페스타 2023 in 익산'이 악천후의 날씨 속에도 1일차 5000명, 2일차 6000명 등 총 1만1000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NS 푸드페스타 2023 in 익산'은 전북 익산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진행됐다. 첫날 행사는 국내 최대 상금 규모인 총 1억원을 건 요리경연인 '미식레시피'가 펼쳐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식탁을 책임질 '가루쌀'을 알리는 장으로서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로 16년차 요리 대회인 '미식레시피' 경연에서는 '건강 익산 고구마 쌀 뇨끼'의 최진혁·김지현씨 팀이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행사를 앞두고 마련된 '가루쌀' 라면을 활용한 '청춘셰프 라면요리왕' 대회에서는 '가루쌀 비건라면'의 유민서씨가 1위를 차지했다.

둘째 날에는 '푸드 컨퍼런스'와 '쿠킹



지난 16일 성료한 'NS푸드페스타'의 다문화가정 대상 쿠킹클래스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억 국내최대 상금 '미식레시피' '고구마 쌀 뇨끼' 최진혁씨 팀 대상

청춘셰프 라면요리왕 등 행사 다채 푸드 컨퍼런스서 '가루쌀' 내용 발표

미래의 공유주방 '미식투어' 비롯해 브랜드전·취업박람회 등 부스 운영

클래스' 등 식품 관련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이 정보를 공유했다.

3부로 진행된 푸드 컨퍼런스는 NS 푸드페스타의 식품 산업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한 행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부 순서로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이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 작물 '가루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2부는 '소스를 이용한 메뉴개발'을 주제

로 최수근 한국소스학회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3부는 서상근 하림산업 전무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라면 개발 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푸드테크의 미래 전망과 식품조리산업의 소스트렌드 전망 등 최신 식품산업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쿠킹클래스가 펼쳐졌다. 2부로 진행된 쿠킹클래스 행사의 1부에서는 음식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2022년 NS 쿡페스트 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임영균씨가 나서 '닭고기 덮밥' 만들기를 진행했다. 모두가 행복한 메뉴를 고르고, 다문화가정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비법을 전수했다. 2부에서는 홍신애 요리연구가가 아이들과 '도시락 만들기'를 진행했다.

아울러 미래의 공유주방을 둘러보는 '미식투어'를 비롯해 하림그룹의 브랜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과장이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 작물 '가루쌀'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NS홈쇼핑

드전,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전시·체험과 시식·판매 부스가 운영됐다.

대표적으로 '익산 맛솔랭', '대물림 맛집' 등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의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고, '더미식' 체험관 운영과 '하림', '선진', '주원산오리', '팜스코' 등의 대표 식품 브랜드의 시식 및 할인판매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식품창업랩의 시제품 품평회와 청년창업기업의 상품 시식 및 전시 홍보를 지원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홍보 및 면접 컨설팅을 지원하는 '성공취업 박람회'도 진행해 활기를 더했다.

축제기간 중 '행정 수도' 서울과 '식품 수도' 익산을 잇는 미식관광열차도 시범 운행해 'NS 푸드페스타'를 비롯해 익산보석박물관과 익산 아가페정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식품산업을 연계한 새

로운 관광 콘텐츠를 내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키웠다.

올해 'NS푸드페스타 in 익산'은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푸드컨퍼런스 쿠킹 클래스 등을 운영하며 거버넌스형 행사로서 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어우러진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현장에서 만난 조 모씨(43, 대구거주)는 “농어촌의 성장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 더욱 뿌듯하다. 전북 익산시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또 현장에서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K푸드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NS 푸드페스타는 NS홈쇼핑이 2008년부터 개최해온 식품문화축제다. 매년 다양한 레시피를 발굴하며, 우리 먹거리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 경연을 이어왔다.

/익산(전북)=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bhc그룹, 편의·접근성 높인 아웃백 재개장

리로케이션 전략… 매장 90여곳 운영 최근 중동롯데·명지스타필드점 개점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매장 출점 전략인 리로케이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웃백은 지난 2021년 11월 bhc그룹 인수 후 지속적인 리로케이션 전략을 펼치며 현재 90여개의 레스토랑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리로케이션은 기존 점포를 폐점한 뒤 같은 상권에 이전 출점하는 전략이다.

17일 아웃백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에 '아웃백 중동롯데점'이 리로케이션 오픈한 데 이어 15일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

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시티 명지' 3층에 '아웃백 명지스타필드점'이 문을 열었다.

기존 부천 아웃백 상동점의 리로케이션 지점인 '아웃백 중동롯데점'은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할인점이 인근에 밀집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부천 롯데백화점 8층에 위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아웃백 명지스타필드점'은 명지국제신도시를 비롯한 부산 전역은 물론 인근 경남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스타필드 명지 시티 내에 입점해 편리한 주차시설과 높은 접근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수도권 최초의 스타필드로 다양한 핫플이 모여있는 만큼 아웃백 리로케이션 지점의 한층 더 세련된 외관

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웃백의 매장 인테리어 변화도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아웃백은 매장 출점 위치와 장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매장별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선보이고 있다.

중동롯데점은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한 모노톤으로 톤앤매너를 맞췄다. 아울러 '정통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아웃백의 이미지를 극대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더간 횡단열차'나 '울룰루', '하버브릿지' 등 호주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매장 곳곳에 녹여내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

홈플러스, 가성비 선물 1000여종 준비

회원 등 대상 최대 40% 할인

홈플러스가 황금연휴맞이 고객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성비 선물 세트들을 준비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전개하고 10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추석 선물세트는 행사 카드 결제 고객과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가에 판매한다.

행사카드구매시 금액대별 상품권을 증정하며,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6

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수량에 따라 선물세트를 하나 더 제공하는 1+1, 2+1, 3+1, 4+1, 5+1, 10+1 행사도 준비했다.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선물세트를 1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고물가 장기화 속 귀성 고객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성비', '실속형' 선물세트에 중점을 뒀다. 또, 홈플러스는 개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열흘 전부터 핸드캐리형 선물세트를 확대 진열할 계획이다.

전국 매장에서 한우 선물세트 맞춤 제작도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풀무원 '식사대용' 핸디밀 생딸기 가득

생딸기 과육 넣어 톡톡 씹히는 맛

(주)풀무원농업은 생딸기와 신선한 우유가 만나 상큼 달콤한 과육의 식감과 동시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식사대용식 '핸디밀 생딸기 가득'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핸디밀 생딸기 가득'은 상큼한 딸기와 신선한 국내산 원유를 한 병에 담은 식사대용식 음료이다. 생딸기 과육을 썰어 넣어 달콤한 과육이 톡톡 씹히는 식감을 살리고 포만감을 높였으며, 저

분자 콜라겐을 병당 1000mg 함유했다. 여기에 양배추, 알로에, 콜리플라워를 사용해 만든 화이트야채복합물을 더해 가볍고 건강한 식단을 원하는 이들의 식사 대용으로 안심 맞춤이다.

제품 패키지 전면에는 'HandyMeal(핸디밀)'이라는 제품명을 크게 넣어 가독성을 높였고, 원물 이미지를 제품명 상단에 넣어 제품의 특징점을 강조했다. 제품은 투명 용기와 최소한의 라벨(스티커)을 사용한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음용 후 분리배출 편의성까지 고려했다.

/신원선 기자

CU, 동절기 앞두고 '호빵' 선보여

캐릭터 협업 등 이색호빵 출시

편의점 업계가 동절기를 앞두고 이달부터 호빵을 선보인다. 특히 인기 캐릭터와 협업하는 등 이색 호빵들을 출시하면서 업계 이목이 쏠린다.

CU는 17일 호빵에 대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본격적인 호빵 출

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절기 대표 간식으로 여겨지는 호빵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초입에 판매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실제 작년 CU의 호빵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출시 초기인 10월 한달 간의 매출이 한겨울인 1월에 비해 48.7%나 높았다.

/최빛나 기자



모델이 CU가 IPX(구 라인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미니니(minini)'와 협업한 이색 호빵들을 소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BGF

‘감자튀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맥케인, 韓 소비자 초대

팝업 산책

연남동 ‘하우스 오브 맥케인’

케이준 감자튀김 활용 아트워크
AI 콜라주 작품 전시… 시식·체험
“한국 소비자·파트너 점점 확대”

‘맘스터치 감자튀김’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맥케인 감자튀김을 집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캐나다 냉동식품 브랜드 맥케인 푸드가 냉동 감자튀김을 앞세워 B2C 사업 확대에 나서는 것.

캐나다 뉴브런즈윅 플로렌스빌에 본사를 둔 맥케인 푸드는 감자 가공식품과 감자튀김의 세계적 리더로서 전 세계인들의 다양한 상황, 취향 및 수요를 충족시키는 맛있고 혁신적인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념해 왔다.

국내에서는 맘스터치와 같은 파트너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B2B 사업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밥 트렌드가 형성됐고 특히 한국은 에어프라이어 보급률이 높아 B2C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오픈한 팝업 ‘하우스 오브 맥케인’ 미디어 데이에서 제인 와이엇 맥케인 푸드 부사장, 제이슨 찬 맥케인 푸드 리전 사장, 한스 쿼 한국·동남아시아 및 대만 지역 세일즈 디렉터, 이재현 한국 지사장(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맥케인 푸드

맥케인 푸드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쿨넬브릴에 ‘하우스 오브 맥케인’ 팝업 하우스를 오픈하면서 미디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이슨 찬 맥케인 푸드 리전 사장은 “올해 초부터 B2B에서 B2C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며 “이제 e커머스 와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들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맥케인 푸드의 목표는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넘버원 감자튀김’으로 인상을 남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하우스 오브 맥케인’ 팝업 전시는 23일까지 진행된다.

‘하우스 오브 맥케인’은 감자튀김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회로, 맥케인 브랜드가 국내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첫 이벤트다. 예술과 미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선사하고, 맛, 창의성, 품질이 보장된 맥케인 푸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맥케인의 대표 제품인 케이준 감자튀김 및 제품 패키지를 활용한 아트워크와 포토존, 체험존 등으로 공간을 구성



맘스터치의 대표 메뉴로 자리잡은 맥케인의 케이준 감자튀김이 있기까지의 파트너십을 확인할 수 있다. /메트로 DB

했다. 직접 시식해 보고, AI나 프로젝션 매핑 등의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체험 공간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맥케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다.

입장 후 먼저 마주하게 되는 ‘헤리티지 존’은 맥케인의 65년 이상의 역사를 모아놓은 공간이다. 1957년 맥케인 형제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감자 가공식품과 감자튀김의 세계적 리더로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바로 옆 ‘맘스터치 존’에서는 맘스터치의 대표 메뉴로 자리잡은 맥케

인의 케이준 감자튀김이 있기까지의 지난 수년 간 두 브랜드의 파트너십을 확인할 수 있다.

‘설치 미술 존’에서는 컨템포러리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감자튀김 전시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AI 아트 존’에서는 감자튀김을 주제로 AI가 만들어 낸 콜라주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프로젝션 매핑 존’은 관객들이 맥케인의 감자튀김을 예술작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빛과 감자튀김의 콜라버레이션을 시도했다.

단순한 관람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더했다. 전시를 관람한 후 에어프라이어로 갓 조리한 케이준 감자튀김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맥케인 감자튀김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실내 및 야외 포토존’을 구성해 관람객들이 전시를 즐기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제이슨 찬 사장은 “‘하우스 오브 맥케인’은 맥케인이 한국 소비자들을 맞이하는 첫 번째 만남의 장”이라며 “이번 팝업 이벤트를 시작으로 국내 소비자 및 파트너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한국 시장에 맥케인 브랜드의 존재감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형지엘리트, 연매출 1000억 달성 ‘눈앞’

22기 개별 매출액 929억 기록
스포츠, MRO 등 신사업 호조

학생복 시장 1위 형지엘리트가 신사업 안착에 성공하며 연매출 100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형지엘리트의 제22기(2022년 7월~2023년 6월) 개별 매출액은 전기 대비 73% 증가한 92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 코지에 약 70억원만을 남겨 둔 상황이다.

회사측은 학생복 사업 외에 스포츠 상품화 사업 및 MRO 등 신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며, 든든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지엘리트의 학생복과 기업 단체복, 스포츠 상품화 사업 등 주력사업 부문 매출은 전기 대비 약 182억원 늘었으며, MRO 부문에서 발생

한 매출 210억원도 이번 실적에 반영됐다.

‘2023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학교 주관구매제’ 입찰에서 낙찰률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2020년 뛰어든 스포츠 상품화 사업에도 힘을 주고 있다.

SSG랜더스, 한화이글스 등 프로야구단에 굿즈를 공급 중이며, 올해는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야구장을 찾는 관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스포츠 상품화 사업 매출 신장에 일조했다.

해외 사업은 더 긍정적이다. 형지엘리트는 2016년 중국 대표 패션회사인 빠오시니아오 그룹의 계열사 보노(BONO)와 손잡고 상해엘리트를 설립하며 현지 교복 시장에 진출했다. 엔데믹 후 등교 재개로 교복 수요가 늘고, 중국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교복 선호도 높아지

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지와의 원활한 교류 협력도 중국 시장 안착에 한몫했다. 협력사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며 영업망을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빠오시니아오 그룹 실무 대표단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국을 찾아 영업력 강화 및 영업망 확충, 홍보 활성화 등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말 진출한 MRO 사업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연내 20여개 브랜드의 그룹사 구매생산을 형지엘리트로 일원화해 계열사간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직공장 운영으로 국내외 B2B 시장 공략 및 글로벌 소싱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영업 활동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220개 기업 참여… 헬스케어 방향성 제시

KHF 2023

역대 최대 규모… 550개 부스 설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헬스케어 기업들이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메세이상이 주최한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박람회 명칭을 ‘국제 병원 의료산업 박람회’에서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로 변경했다. 행사 3일차인 지난 16일에는 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2023 K-디지털헬스케어 서밋’도 진행됐다.

이날 서밋에서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는 ‘초거대 AI를 통한 헬스케어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카카오브레인은 자체 모델 ‘코지피티(Ko

GPT)’를 개발해 헬스케어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김일두 대표는 “카카오브레인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전문성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개인화”라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코지피티는 ‘메디컬 놀리지(의학적 지식) Q&A’라는 데이터를 학습했다. 예를 들어 코지피티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명령하면 코지피티는 약의 성분, 작용기전, 부작용, 용량, 용법 등을 알려준다. 나아가 개인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체지방률, 목표 등에 맞는 처방을 추천하고 권고사항도 설명한다. 김 대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만 한다면 ‘웹 검색’과 다르지 않다”며 “AI를 통해 전문성 있는 명령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KHF 2023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20개 기업이 참여해 550개 부스를 설치했고 약 35개 전문 세미나와 콘퍼런스가 있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애경산업, ‘바이컬러’ 팝업스토어 오픈

‘나의 색을 찾아가는 여행’ 테마

애경산업의 뷰티 덴탈 브랜드 ‘바이컬러(BYCOLOR)’가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운영된다.

바이컬러는 중국 단체관광 허용 등 최근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방문하는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팝업스토어를 선보였다.

바이컬러 팝업스토어는 ‘Find your color(본연의 색을 찾아주세요)’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맞춰 ‘색’을 매개로 글로벌 고객들과 소통하고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공간이다. ‘나의 색(컬러)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테마로 체험존, 포토존, 이벤트존 등으로 구성됐다.

체험존에는 색과 구강 질환을 매칭한 물방울 형태의 반구형 돌립관 등을 설치해 구강 고민에 맞는 제품을 색상별로 소개해 주 구강 고민별 맞춤 제품을



‘바이컬러’ 팝업스토어 /애경산업

찾아주는 콘텐츠가 준비됐다.

포토존은 다채로운 색상을 적용한 심플한 의자에 양면의 콘셉트를 달리한 포토존에서부터 폭포를 연상시키는 다채로운 컬러폭포 포토존, 욕실 콘셉트의 트렌디한 포토존으로 구성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광동제약, ‘광동 에너지정’ 출시

간편 복용으로 졸음방지·피로회복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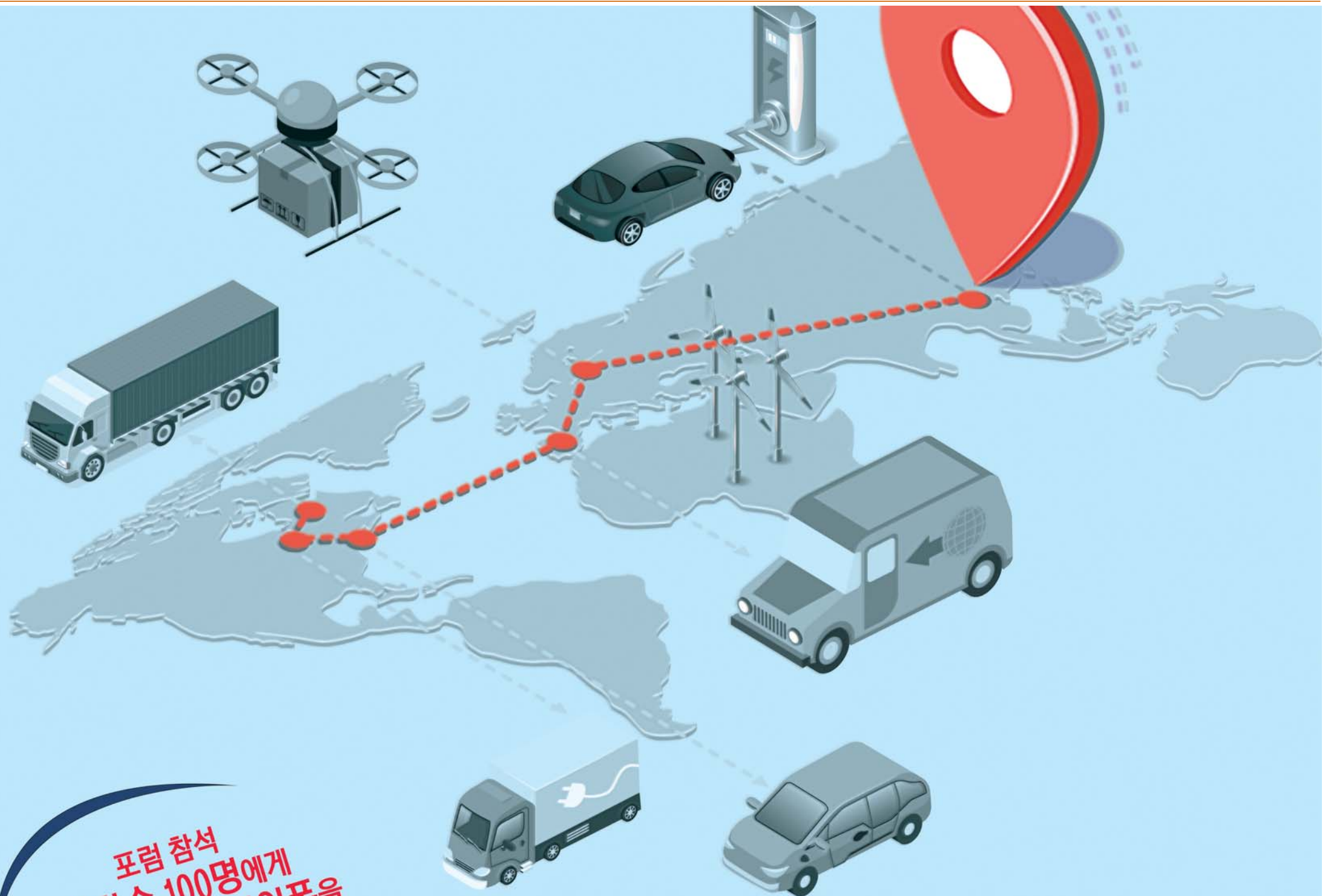
광동제약은 간편한 복용으로 졸음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광동 에너지정’을 출시했다.

광동 에너지정은 1정 당 카페인무수물 100mg과 비타민 B 3종(티아민질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시아노코발라민)을 함유했다. 커피 한 잔의 평균 카페인

함량(150~200mg)을 감안할 때 1회 2정 권장량 복용 시 커피 한 잔 분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셈이다.

카페인 함유 제품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광동 에너지정은 작고 가벼운 박스 형태의 포장으로 카페인을 함유한 각종 드링크제보다 휴대와 복용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이세경 기자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블루투스 무선이어폰을
증정합니다.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명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일시 : 2023년 9월19일(화) 14~17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장소 :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중견련, 중견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팔 걷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역 중견기업 추가 육성 지원에 나섰다. 중견련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가운데)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기보-산기평, 기술혁신기업 성장 지원 MOU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기업 성장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과 '산업기술 R&D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중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전윤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교촌에프앤비, 3회 촌스러버 대화… 공주시 치킨 나눔

교촌에프앤비는 공유가치창출 프로젝트 '제3회 촌스러버 선발대회'를 통해 선정된 '촌스러버'와 함께 지난 8일 충남 공주시 금학초등학교에서 치킨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촌스러버 선발대회' 사연의 주인공은 충남 공주 금학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조리사의 머느리로, 30년간 학교 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조리사 시어머니의 은퇴식을 기념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로 진행했다. /교촌에프앤비

고창호 코웨이 서비스매니저 고객 보이스포싱 피해 예방

코웨이 서비스매니저가 고객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감지하고 현명한 대처로 거액의 보이스포싱 피해를 막았다.



17일 코웨이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서비스지점에 근무하는 고창호 서비스매니저(사진)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비데 설치 업무 중 스마트폰으로 들려오는 고객 통화 내용에서 “사는 곳이 어디냐”, “전화를 끊지 말고 외출 준비를 한 뒤 다시 전화를 받아라”는 말에 보이스포싱 범죄임을 직감했다.

고 서비스매니저는 통장과 도장을 챙겨 급하게 외출하려는 고객을 침착하게 안심시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줌으로써 보이스포싱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해당 사연은 고 서비스매니저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명받은 피해 고객의 아들이 회사 고객센터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고창호 코웨이 서비스매니저는 “연신 고맙다고 하시며 배웅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앞으로도 작은 관심을 기울여 고객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차그룹, 모로코·리비아에 110만弗 구호성금 ‘쾌척’

글로벌 재난 피해극복 앞장 피해차량 무상점검 활동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진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모로코(50만달러)와 리비아(60만달러)에 총 110만 달러 규모의 구호성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4개 계열사(현대차, 기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전달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에 전달돼 현지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 지원과는 별도로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는 모로코 현지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원형사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판매대리점과 협력해 학교 용품 운송, 심리 치료사 이동, 헌혈, 정부 주도 구호 펀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차량 부품 할인 및 무상 점검 특별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기아 아중동권역본부 또한 판매대리점과 협력해 NGO 단체에 차량을

무상 대여하고 모로코 정부기관에 엠블런스 개조 차량을 기부하는 등 현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비아에서는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가 피해 차량 부품 할인 및 무상 점검 특별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현대차 판매대리점이 트럭 30대

롯데케미칼 노사, ESG 실천 맞손… “지속가능한 기업 함께”

ESG 실천 노사 상생 선언식 개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업 공동 노력

롯데케미칼 노사가 ESG 실천과 노사 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롯데케미칼은 14일 오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ESG 실천을 위한 노사 상생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 대산, 울산사업장의 노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부회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여수·대산·울산 사업장 노조위원장과 총괄 공장장이 모였다.

롯데케미칼 측은 “이날 롯데케미



(왼쪽에서 첫번째)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부회장, (오른쪽에서 첫번째)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를 비롯해 사업장별 노조위원장 및 총괄공장장이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칼 노사는 창조적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모두가 행복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이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롯데케미칼 노사는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각 사업

장의 미래 변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탄소중립 및 에코 경영을 실천하고, 순환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친환경 미래 사업 선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회사 측은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 등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사가 함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에 나선다.

황진구대표는 “속도감 있는 친환경 미래 신사업 확대와 탄소중립성장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간의 협력 확대와 ESG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롯데케미칼은 사업경쟁력 강화와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현 부회장은 “이번 노사 상생 선언으로 하나된 노와사가 회사발전의 추진체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화학군 계열사 전반에 노사 협력 문화의 긍정적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정운 기자 zelkova@

SKT “전주-반려견 마음으로 AI 활용” 포스코인터, 부산엑스포 응원전 펼쳐

‘시고르자브 보건소’ 영상 선포 반려견 주인공으로 AI 철학 소개

SK텔레콤이 반려견을 주인공으로 세상을 향한 AI(인공지능) 철학을 알리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SKT는 디지털캠페인 영상 ‘시고르자브 보건소’를 유튜브에서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시고르자브 보건소’는 믹스견을 재미있게 표현한 애칭 ‘시고르자브 중’에서 따온 제목으로, SK텔레콤의 AI 기술로 귀엽고 순수한 견공들의 건강을 지키고 동물을 사랑하는 견주들의 마음과 공감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됐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농촌 마을에 있는 수의사와 그를 보조하는 AI가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반려견을 도우며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았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할머니, 아픈 반려견을 안고 늦은 밤 한걸음에 보건소로 달려온 아



SK텔레콤 디지털캠페인 영상 ‘시고르자브 보건소’ /SKT

저씨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동물 의료 AI 서비스인 ‘엑스칼리버’를 의인화해 일상 속에 함께하는 SKT의 AI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려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AI기반 수의영상진단 보조서비스인 ‘엑스칼리버’를 출시,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SKT의 앞선 AI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의료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 선진화 등 동물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유치기원 길거리 탁구대회 개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길거리탁구대회를 개최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6일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광장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길거리 탁구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일반시민대표 30명과 김나영 선수를 비롯해 김별님, 김예림, 유시우 등 스피너스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길거리탁구대회 외에도 전문MC의 진행과 함께 방문인증, 물렛, 스탬프 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마련해 현장의 재미와 열기를 더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우상혁,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

‘스마일 점퍼’ 우상혁(사진)이다 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정상에 오르며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작성했다.

우상혁은 1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개인 실외 최고 기록인 2m



35를 넘으며 우승했다.

그는 2m33을 넘은 노베르트 코비엘스키, 주본 해리슨을 제치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트로피와 우승 상금 3만 달러(약 4000만원)의 주인공이 되며 환히 웃었다. /최규춘 기자 ch9720@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선택한 검증된 학습법 링크

과목/ 수준 모두 “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맞춤** 학습 ” 링크를 경험해 보세요

한글(국어), 수학, 영어 모두 시작하려는 아이도
영어만 지금 필요한 아이도 모두 OK!



지금 무료체험 신청시,
알파벳 + 수학 브로마이드 2종도 선물!



수학
브로마이드



알파벳
브로마이드



1위 학습 링크, 무료체험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링크 무료체험을 신청하세요!



신탁회사의 ‘자금집행순서약정’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대부분의 신탁사는 시행사와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승계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신탁계약에서는 ‘신탁회사의 자금집행순서’에 대해 ▲공사비의 90% 범위 내의 기성금은 대출원리금 등보다 선순위로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잔여 공사비는 대출원리금 등보다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공사비의 90%가 지급된 상황에서 신탁회사, 시공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가 신탁회사에 직접지급 요청을 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약정상 선순위인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

하수급업체 A는 자신과 발주자인 신탁사 B, 시공사 C 3자간에 체결된 직불합의

에 따라 신탁사 B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탁사는 “시공사의 잔여 공사비채권보다 선순위인 대출금용 기관의 대출원리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잔여 공사비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제1심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6. 선고 2020가합105329판결).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직불합의서에서도 신탁회사는 시공사에게 지급할 기성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수급사업자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시공사가 신탁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러나 제2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결과 달리, 수급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

결). 계약법의 기본원리상 신탁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인 신탁회사, 시공사만을 구속하므로, 신탁계약상 신탁자금 집행순서가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급사업자에게도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이나 직불합의의 그 어디에도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 판단과 달리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발주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법인 바른

50년 만기 주담대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7월부터 상품을 판매했고, 10년 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보면 비중도 얼마 되지 않을걸요.” 50년 만기 주담대 비중이 많이 늘었냐는 질문에 금융권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40년으로 제한했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에서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40년으로 제한한다”며 “은행은 차주의 기대여명, 은퇴시점 등 상환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러니하다. 예컨대 연봉이 6000만원인 A씨가 비규제지역에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40년만기 주담대를 연 5%로 받은 경우 한도는 4억1500만원,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은 경우 한도는 4억450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한다.

6대 은행·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16.2%에서 8월 48.3%로 집계됐다. 50년만기 주담대 대출금액은 7월 1조8000억원, 8월 5조1000억원이다.

A씨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할 경우 2295억원이 10년 한도로 늘어난 금액이고, 나머지 4억8705억원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던 금액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란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상환능력 증명도 의문이다. 대출 신입 사원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살, 정년퇴

직 연령은 만 60세, 실질 은퇴연령은 72.3세다. 최대폭으로 잡아도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시기는 41.4년이다. 천운이 따라야 50년만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을 두고, 50년만기 주담대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6월에 50년 보금자리론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50년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차주의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은 뒤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면, 증가했다고 인정하고 실소유주로 제한하면 그만이다. 금융기관 뒤로 숨기보다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8일 (음 8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남의 잔치에 감 뇌라 배 뇌라 하지 말도록. 48년생 내과에 가서 대장포진 주사를 상의해보도록. 60년생 능력이 있을 때 베풀라. 72년생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는데. 84년생 낫맡은 새가 듣고 밤 맡은 쥐가 듣는다.



3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4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61년생 바빠도 제사에 참석하라. 73년생 힘든 일을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85년생 원하는 바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보라.



38년생 집안 청소는 식은 죽 먹기이니 해보라. 50년생 미소는 금상첨화(錦上添花). 62년생 남의 말은 잘해야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4년생 능력도 없이 과욕을 부리지 마라. 86년생 진달래와 철쭉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39년생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51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이다. 63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기분 좋은 하루. 75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잠시 여행을 떠나 보자. 87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40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52년생 숨은 실력을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64년생 장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라. 76년생 책임진 일을 쉽게 처리하나 성과는 늦게. 88년생 도장 찍을 일은 내일로 미루라.



41년생 좋은 꿈을 얻으려면 빌통을 손질해라. 53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공부하는 사람. 6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 77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8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지말자.



42년생 사돈의 어설픈 행동이 내 눈에 보이는데. 54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편안하게 보낸다. 66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78년생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90년생 인생사 가는 방향이 오는 흉두깨이다.



43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조용한 하루를 보낸다. 55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말조심. 67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79년생 이성이 다가오나 내 상대는 아니다. 91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이다.



4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56년생 지나오고 보니 이 길이 내길이었네. 68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난다. 80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적이 생기지 않는다. 92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45년생 능력이 없으면 감탄고토(甘香高土)가 될 수밖에. 57년생 재물 유혹이 많은 날이니 투자에 주의. 69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81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93년생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챙기면 되겠는가.



46년생 지나온 세월이 그나마 행복. 58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다. 70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큰 낭패. 82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94년생 반려동물을 버리려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도록.



47년생 희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59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자. 71년생 약속이 겹쳐 실수할 수 있으니 체크. 83년생 이직은 한 달 후에 후회를 가져온다. 95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불평하지 말고 나가라.



김상회의四季 경영자 사무실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때 역술가를 배석시킨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회자했다. 기업으로서는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할 만하다. 기업에서 그에 못지않게 신경 쓰는 게 풍수이다. 회사 건물을 옮기거나 새로 지을 때 풍수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업이 많다. 건물의 위치는 물론이고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지 층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를 살핀다. 사무실 가구를 배치하는 인테리어 풍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 평균적으로 반듯한 모양의 건물에 도로가 접해 있는 자리를 선호한다.

회사 건물도 중요하지만 경영자 사무실은 그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경영자 사무실이 좋은 기운을 받으면 회사는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고 나쁜 기운에 싸이면 쇠락하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경영자 사무실의 위치가 풍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경영자 사무실은 높은 층이 많은데 아래쪽으로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시선을 가질 수 있고 위쪽으로 트여있어 기운이 뻗어나갈 수 있다. 창밖 전망이 꼭 좋을 필요는 없지만 보기에 불편하고 지저분한 풍경이라면 가리는 게 낫다. 그래야 사무실에 정갈한 기운이 머문다. 책상을 배치할 때는 상석에 놓는데 사무실의 왼쪽이 전통적으로 상석에 해당한다. 결재 받으러 온 직원의 자리에서 봤을 때 경영자 책상이 왼쪽에 위치해야 한다. 국가 의전을 할 때도 보는 사람의 왼쪽이 상석이다.

사무실 풍수는 정해진 틀이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건물과 출입문의 방위 등 여러 요소를 살피는데 경영자 사무실에 어떤 기운이 모이느냐에 따라 회사는 운명이 달라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37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놀이터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4
			9	2		6	8
7				8	3	2	
		3	8	4			7
	2			7			6
	9			6	1	3	
		9	2	3			6
	7	5		9	8		
2	6						

		8					6
		3	8		7		4
4	9	1		5			
		4					
6				8			5
						7	
				2		1	5
7	3		6		4	8	
	2					4	

정답

8	6	7	9	1	8	9	2
1	2	7	8	6	9	9	8
9	9	8	2	8	2	6	7
2	7	8	1	9	9	2	6
8	9	1	6	2	8	7	9
9	6	2	7	8	8	1	9
6	1	2	8	8	7	9	2
2	8	9	9	2	6	1	8
7	8	9	9	1	2	8	6

9	8	7	8	2	9	6	2
6	2	8	7	1	9	9	8
2	9	1	8	2	6	9	7
7	8	2	6	9	1	2	9
9	8	2	8	7	2	1	9
2	1	9	9	8	2	7	8
8	2	2	9	9	8	1	6
1	7	9	2	6	8	8	9
8	9	6	1	7	2	8	2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인서울’ 12곳, 올 수시 전년比 3.8만명 ↑… N수생 대거 몰려

상위권 수험생들 상향지원 경향
올 수능 접수 고3 지난해比 줄어
수시 지원자 늘어 ‘인서울’ 쏠림
성균관대·중앙대 각각 1만명 ↑

전국 대학 2023학년도 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고3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2만여명 넘게 감소했음에도 서울에 위치한 이른바 ‘인서울’ 대학 12곳의 수시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8000여명이 더 몰렸다. 수능에서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N수생이 대거 몰리고, 상위권 수험생들이 안정 지원보다 상향 지원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 건국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 경쟁률 크게 올라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은 전체 21.39대 1을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32만6646명으로 35만239명이던 지난

해보다 2만3593명 줄어들었다. 주요 12개 대학의 올 수시 모집인원은 2023학년도보다 395명 늘었지만, 지원자는 3만8712명 늘어 경쟁률은 1.42p 오르며 ‘인서울’ 쏠림은 더 심화했다.

특히 올 수시에서 성균관대와 중앙대에는 각각 7만1872명, 7만463명이 원서를 지원하며 12개 대학 중 지난해와 견줘 가장 많은 오름세를 보였다. 두 대학에 지난해에는 각각 6만968명, 6만836명이 원서를 넣었지만, 올해는 각 대학에 1만명씩 더 많은 수험생이 몰렸다.

이밖에도 건국대(25.83대 1)가 3.08p, 서강대(29.69대 1)가 2.54p, 서울대(8.84대 1)가 1.98p, 연세대(14.62대 1)가 1.93p 등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인서울 주요 대학에 지원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난도 킬러문항 배제로 상위권 학생의 수능 자신감이 높아진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접수 시 서울권 상위권 대학에 집중화 현상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재수생 또는 반수생도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에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서울 상위권 대학 집중 현상으로 대학,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 ‘안정’보다 ‘도전’ 지원… 학종·논술 경쟁률 ↑, 교과 ↓

올해 수험생들은 안정 지원보다는 도전적 성향의 지원을 많이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은 상승했지만, 교과전형은 하락한 경향을 띠고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올해부터는 진로선택과목을 정량평가해 반영하거나 진로선택과목의 이수 여부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심리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이는 평가 지표가 불확실한 학생부종합전형과 달리 최근 2~3년간의 입학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특징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학생부 반영 항목 축소와 자기소개서 폐지 등의 외적 요인으로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합·불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수험생들이 대체로 공격적 지원에 나섰다. 김병진 소장은 “지난 해까지와는 다른 환경으로, 지난해까지의 입학 결과가 올 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심리가 수험생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낸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한 시민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

서울시, 전통시장 106곳서 할인 행사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10월1일까지 시내 106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에 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광장시장(종로구) ▲목동개비시장(양천구) ▲대조시장(은평구) ▲장미제일시장(종랑구) ▲답십리시장(동대문구) ▲비단길현대시장(금천구) ▲까치산시장(강서구) ▲길음시

장(성북구) ▲고척근린시장(구로구) 등 총 106곳이다.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 할인판매전’도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이어진다.

참여하는 시장은 ▲남대문시장 ▲왕십리무학봉시장 ▲강남개포시장 등 총 63개소이다. 시민들은 쿠팡이츠,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등 4개 주요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스크린도어로 도착역 쉽게 확인하세요”

서울시,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1~8호선 스크린도어 역명 부착
좌석·출입문 등서 도착역 확인

앞으로는 달리는 지하철 속에서도 열차 유리창을 통해 도착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으로 1~8호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에 역명 표지 부착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열차 안 좌석과 출입문 등 어느 곳에 서나 사각지대없이 도착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의 가동문과 고



서울시가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으로 1~8호선 승강장 안전문에 역명 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서울시

정문에 각 소형·대형 크기의 역명 표지

를 붙였다.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 개선과 함께 글씨 크기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스크린도어에 일부 부착된 역명 표지는 글씨가 작고 사각지대에 부착돼 있어 도착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출입문 쪽에 있는 승객들은 승강장 안전문 가동문을 통해, 좌석에 앉은 승객 등은 유리창을 통해 역명 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역명 표지 부착 사업은 지난달 1~8호선 275개 모든 역사에 적용됐다. 단, 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이달 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뷰티부터 첨단 라이프스타일 선보인다

서울시, 21~24일 DDP에서 개최

서울시는 21~24일까지 나흘간 DDP에서 ‘서울뷰티위크-더 라이프스타일 서울’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K-뷰티기업 100여 곳이 참여한다.

첨단기업관(아트홀1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 27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해 뷰티 최신 트렌드와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중소기업관(아트홀2관)에는 유망 중소기업 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발된 56개사가 참여

한다. 뷰티뿐만 아니라 패션·리빙·푸드 등 다양한 트렌드를 제품을 소개한다.

라이프스타일서울 특별관에서는 뷰티·패션·리빙 등 서울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견인하는 중소기업들의 테크 제품을 내놓는다. 뷰티 트렌드와 생활 문화 체험하고 첨단 테크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시민참여공간(어울림광장)도 마련된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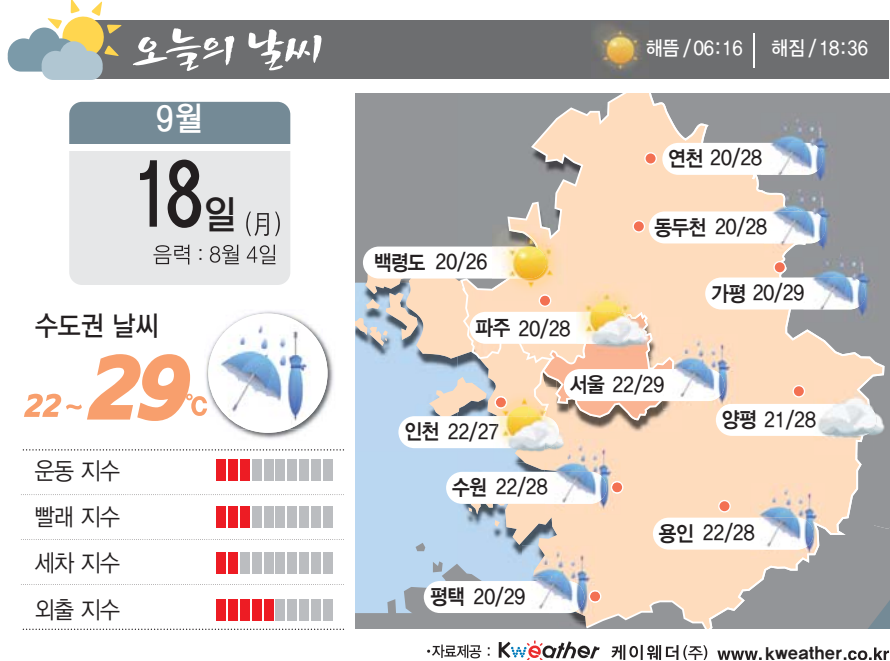
성남시 “시 의료원 을 의료손실 적자 633억”

하루 평균 입원 환자 100여 명 불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 해 상반기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손실 적자가 262억 원 발생하여, 연말까지 손실 추계치는 633억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현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개원했다. 건립비용 1691억 원과 성남시가 지난 2016년부터 8년간 지원한 누적 출연

금 2197억 원을 합해 총 388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성남시는 시 의료원에 지금까지 8년 동안 연평균 274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시 의료원은 현재 설치된 509병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되고 일상 관리체제로 돌아오면서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0여 명에 불과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우크라, 크림반도 정조준?... 러 국방 “우크라 드론 6대 격추” /사진 뉴시스
▲中 헝타 위기 계속... ‘투자금 7조 미지급’ 금융계열사 CEO 체포

▲日정부, 저출산에 공립대 신설 억제... 학생 모집가능 경우만 인가
▲태국 새 정부, 대마 합법화 유지... 총리 “향락용 허용은 반대”



▲유엔 “리비아 대홍수 사망자 1만1300명으로 늘어”
▲김정은, 4년5개월만 러 극동연방대 방문... 北 유학생들과 대화 /사진 뉴시스



NS 푸드페스타
K-푸드 알리고
지역과 상생
L1

metro[®]

Life

맥케인
팝업 하우스 오픈
韓 소비자 초대
L2



“韓-중앙亞 문화교류 넘어 최대규모 유통채널 만들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유튜브 ‘라이준TV’
이제 중씨

해외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 이제중(32)씨는 이달 한국에 들어왔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 씨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현지 생활을 보여주는 유튜브 ‘라이준TV’의 주인공이다.

그는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 가진 인터뷰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만든 채널이었는데 어느새 문화교류 채널로 바뀌었고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자들은 물론 주변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 제 꿈의 최종 목적지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커머스 시장이 부족한 키르기스스탄을 거점 삼아 유통회사를 차린 뒤 관세동맹이 맺어진 주변국까지 영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 “고난은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 씨가 처음 러시아로 향한 것은 만 24살이었던 대학교 4학년 때였다. 한국에서는 취업, 창업 모두 경쟁이 치열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어를 공부해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기로 마음 먹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은 평범하다고 판단했다. 학과 교수님이 러시아 교환학생을 추천했다. 한 철도전문가가 신북방정책이 활발해진다고 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환학생 졸업 후 러시아 현지 유통회사에 취직했다. 현지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였다. 충분한 자본과 경험 없이 유통업에 뛰어들었다. 3년 만에 회사가 망했다.

취직한 회사가 사라진 뒤 러시아 유통을 원하는 업체의 투자를 받았다. 현지인 대상 마케팅을 위해 유튜브를 개설했다. 직접 온라인 마케팅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유입됐다. 러시아 현지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때부터 러시아 생활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튜버로 방향을 전환했다.

새 회사 운영 초기만 하더라도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이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오프라인 유통에 타격을 입었다. 이어 회사의 회장이 공금을 횡령해 도주했다. 약속된 투자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타지에서 겹박재를 겪은 셈이다.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었다. 코로나19로 외출금지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유튜브에 더 집중했다. 그러던 중 택시 기사들의 ‘바가지요금’ 논란 영상에 시청자가 대거 유입됐다. 유튜브만으로 직원들 월급과 경비가 나와 회사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팬데믹 속에 개인 자산으로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웠다. 러시아 생활 6년 만에 통장 잔고가 바닥났다. 새 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했다.

그는 “주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조언했지만, 나의 길이 있다고 믿었다. 열정만 있으면 길은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 “중앙아시아의 ‘쿠팡’ 만들 것”

이 씨의 최종 목표는 중앙아시아 최대 유통회사다. 두 번의 사업 실패 후 키르기스스탄에 도착하니 새로운 것들이 보였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현지 사람들과 소통한 경험이 도움을 줬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키르기스스탄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고 했다. 아울러 초 대형 채널이 아닌 이상 인플루언서들은 별도의 수익이 없다. 두 상황을 고려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제품 홍보와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이제중씨가 키르기스스탄 소금호수에 방문한 모습.
▶ 이제중씨가 키르기스스탄 알틴 ‘아라산’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는 모습.
/라이준TV

러시아 교환학생 졸업, 현지 유통회사로 사업 시작 후 마케팅 위해 유튜브 개설
현지 생활 담은 유튜버로 방향 전환해

두 번의 좌절 겪고 키르기스스탄으로 관세동맹 주변국에 유통채널 확장 목표

유튜브 통해 K팝 등 한국 문화 홍보
고려인 역사보존, 문화교류에 관심도

이 씨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업체가 많다. 그들을 위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직구몰’을 운영해 투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배송 대행 공략 방안도 있다. 향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들이 두 국가에서 나오는 양질의 생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새 판을 짜겠다는 것. 특히 독립국가연합을 중심으로 유통채널을 확장할 방침이다. 관세동맹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와일드베리스’를 뛰어넘겠다고 했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1등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이 씨는 “유튜브를 하면서 민관과 여러 차례 협력했다. 그 경험치는 아직도 쌓이고 있고 현지 시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단기간 내 와일드베리스를 뛰어넘는 CIS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 “고려인 역사·문화 다루고파”

이 씨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국 문화를 전파할 기회가 자주 생겼다.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케이팝 열기를 영상으로 만든 것이 계기가 됐다. 고등학교 때 춤추기를 좋아했다. 대학교에서는 4년간 춤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현지 사람들과 한국 음악에 맞춰 춤추고 놀았더니 어느새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됐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의 협업에 이어 카자흐스탄 대사관과는 개천절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021년에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신북방 청년 크리에이터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현재는 키르기스스탄 세종학당과 함께 한국 문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는 “평범하게 현지에서 일하는 직원 혹은 사업가는 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당의 부탁으로 응했지만 좋은 경험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한국문화 홍보는 나라와 나라를 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사업은 시장과 시장을 연결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고려인의 역사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키르기스스탄 고려 회관에 방문한 뒤부터다.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한국 문화 보존에 힘쓰는 모습을 직접 봤다. 앞으로도 사업 구상과 함께 역사 보존, 문화 교류 등에서 함께 힘을 계획이다. 유튜브를 활용해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공익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같은 전통을 공유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어를 잊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언어, 기술 등 교육을 통해 한국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며 “한국의 인구 감소, 인력 부족의 상황과도 맞물려 서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버스타비 **야구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우상혁, 2m35로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韓 육상 새 역사
▲박혜정,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최종량급 3관왕 쾌거…합계 289kg /사진 뉴시스

▲女배구, 올림픽 예선 1차전 이탈리아에 첫아웃 완패
▲김성현, PGA 포티넷 챔피언십 3R 공동 2위…선두와 2타차



▲클린스만, 서울-광주전 관전…전날 이어 연속 K리그 현장
▲투수 맞힌 배지환, 충격받았나…양키스전 3타수 무안타 1볼넷 /사진 뉴시스